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요약보고서)**

2026. 5. 18(월) ~ 21(목)

일본 도쿄

The Okura Tokyo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요약)

I. 개요

1. 개최일시 : 2026년 5월 18일(월)~21일(목) * 5.18(월) 한국 측 단장단 일본정부 예방
2. 개최장소 : 일본 도쿄, The Okura Tokyo
3. 주최·주관 :
 - 한국 측 : 산업통상부, (사)한일경제협회, (사)한국무역협회
 - 일본 측 : (일사)일한경제협회, (일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4.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250명
 - 한국 측 : 구자열(具滋烈) 단장·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137명
 - 일본 측 :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단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113명
5. 회의주제 :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
6. 주요일정
 - ▲일본정부 예방(한국 단장단), ▲개회식, ▲제58회 본회의, ▲환영리셉션,
 - ▲양국 단장단 오찬회(공동성명심의회), ▲공동기자회견 등

날짜	시 간	행사내용	비고
18 ^(월)	AM	• 한국 측 단장단 출국 : 김포 → 하네다	버스
	12:30~13:30	• 한국 측 단장단 오찬	7층 첼시
	13:45~15:30	• 일본정부 예방(일한의원연맹, 내각총리대신)	총리관저 등
	17:00~19:00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 주최 단장단 초청 만찬	대사관저
19 ^(화)	08:40~10:45	• 일본정부 예방(외무성,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등
	14:00~14:30	• 주요인사 상견례	2층 빅토리아
	14:30~16:40	• 개회식·기념촬영·기조연설·신산업무역회의 보고 등	2층 오차드
	16:40~16:50	• 커피 브레이크	
	17:00~18:30	• 한일·일한경제협회 공동주최 환영리셉션	7층 메이플
	17:45~20:00	• (일사)일한경제협회장 주최 만찬 (단장단 초청)	41층 에뚜알
20 ^(수)	09:00~11:30	• 본회의 제1세션	2층 오차드
	11:45~13:10	• (단장단) 공동성명 심의회 *일반단원 7층 메이플	41층 에뚜알
	13:20~16:20	• 본회의 제2세션·폐회식	2층 오차드
	16:30~17:00	• 공동 기자회견 (한·일 양국 단장)	7층 첼시
21 ^(목)	09:15~10:00	• 이동 : 호텔 → 하네다공항	버스
	12:35~14:55	• 한국 측 단원 귀국 : 하네다 → 김포	KE2102

II. 개최 결과

1. 개최 성과

□ 중동전쟁 및 자국제일주의의 대두 등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지경학(地經學)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금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은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테마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한일 연계의 기반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

□ (공동성명 내 양국 협력 사항)

- ❶ CPTPP의 한국 가입 및 일본의 지원을 기대
- ❷ 인공지능(AI)·디지털, Age-Tech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과 스타트업 지원
- ❸ 차세대 교류의 기회 확대
- ❹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조기실현

□ 한일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 **총 인원 12,907명(韓6,825명, 日6,082명)에 이르는 네트워크 구축**

□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지나 2028년도 환갑(60회)을 맞는 금번 회의에서 한일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의 유지·강화**,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미래로 이어지는 신뢰의 유대를 담은 의미 깊은 공동성명서를 발표**

- 양국 경제인은, 경제 연계 확대를 위해 ①CPTPP 등 경제공동체 형성, ②스타트업 금융 협력, ③Age-Tech 분야 협력 등 저출생고령화를 포함한 사회과제 연계·협력, ④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관광분야 협력에 합의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 지경학적 긴장으로 경제안보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등 여러 과제가 중첩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은 안정된 외교관계와 상호이해 진전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구축하고 있음
-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이 협력

❶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의 유지·강화

- 한일 경제공동체 구성 논의를 토대로 한일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여 국제적 존재감과 발언권을 높이고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CPTPP의 한국 가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의 진전과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

❷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음
- 한일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3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 AI·디지털, Age-Tech 등 신산업분야의 육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혁신을 창출

❸ 미래로 이어지는 신뢰의 유대

- 한일의 차세대를 짚어질 젊은이들이 이른 시기부터 서로를 알고 함께 배우며 교류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
- 출입국 절차 간소화의 조기실현을 제창, 지속적인 한일연계의 기반을 가일층 강화

□ 한일·일한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경제인회의로, 한국 측 단장단은 회의 개최 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 총리대신을 예방

* 예방처 : 18(월) 총리대신, 일한의원연맹 회장 / 19(화) 외무부대신, 경제산업부대신

- 회의 개최 전 한국의 경제계가 일본총리를 예방하고, 그 다음 날 일본총리가 한국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정치·외교와 민간 경제가 맞물려 양국 관계가 향후 경제협력의 폭과 속도가 한층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짐
-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측 대표단의 방일을 환영함과 동시에 양호한 한일관계 기조를 지탱하고 있는 경제인사 간 교류가 가일층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
-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다음 날 진행될 한일 셔틀 정상회담으로 바쁘신 가운데 예방을 수용해준 점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양국 정상께서 각 방면의 우호를 두텁게 하고 계시기에 경제인들도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

□ (주한일본대사) 내빈인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양국의 정상 또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경제인들이 힘써 주기를 당부

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긴밀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며 협력하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

② AI와 첨단기술이 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역량 및 ICT 경쟁력을 결합하면 양국은 글로벌 첨단 산업의 중심축으로 함께 도약할 수 있음

- **(일한의원연맹 회장)**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이래 코로나 사태에도 한 번도 멈춤없이 개최되어 온 가장 역사가 길고 대표적인 회의임을 평가하고, 현재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정치적인 이슈가 양국의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경제계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연합뉴스, TV조선, 헤럴드경제, 교도통신, 니혼케이자이신문, 일간공업신문, 치바TV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향후 60년의 한일관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감대 형성**

- 총리관저, 외무성 홈페이지에 예방 관련 내용 게재
- 언론사 사진기사 포함, **69건에 달하는 기사가 온라인에서 보도됨**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발언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회인사)	
한일경제협회 구 자 열 회장	❶ 한일 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 구축한 순망치한의 관계로, 정치 외교분야의 우호적 관계를 배경으로 경제협력 또한 강화 ❷ 고령화, 기후위기, AI패권 경쟁 등 시대적 공통과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에너지, 전력 인프라 협력 - 핵심 광물 및 자원 공급망 협력 - 제조업을 위한 AI, 로봇 분야 협력 ❸ 한일경제인회의는 곧 환갑(60회)을 맞이함. 상호이익이 되는 과제들을 더 넓고 깊게 의논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 도출을 노력
일한경제협회 고지 아키요시 회장	❶ 58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 수 많은 대화와 협력을 진행해 온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에게 있어 소중한 재산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❷ 차세대가 직면할 환경은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엄격할 것이고 변화의 속도도 더욱 빠를 것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일연계가 현실적이고 유효한 선택지 ❸ 금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고 차세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내빈인사)	
주일한국대사관 이 혁 특명전권대사 *최영배 경제공사 대독	❶ 반세기를 넘는 세월동안 이 회의를 지켜온 양국 경제인들의 변함 없는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한일경제인회의야말로 한일 경제교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양국 상호 신뢰의 산 증거 ❷ AI와 첨단기술이 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역량 및 ICT 경쟁력을 결합하면 양국은 글로벌 첨단 산업의 중심축으로 함께 도약 가능 ❸ 한국 정부와 주일한국대사관도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일한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회장	❶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이래 코로나 사태에도 한 번도 멈춤없이 개최되어 온 가장 역사가 길고 대표적인 회의임. 지금까지 회의를 이끌어 언 양국 경제인사분들에게 감사 ❷ 동북아시아에서 한일이 연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낌. 의원연맹 또한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책임을 완수해 나갈 예정 ❸ 현재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정치적인 이슈가 양국의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경제계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

(기조연설)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김창범 부회장 대독	❶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양국의 관계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음. 새로 취임하신 두 분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양국 경제협력이 한 차원 도약하기를 기원 ❷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인 지금, 대외경제의 의존도가 유독 높은 한일 양국에게는 심각성이 점차 거대해질 예정으로, 한일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 - 공존을 위한 경제안보 협력 - 성장을 위한 AI협력 - 지속을 위한 미래세대 협력 ❸ 우리에게 이미 60년 협력의 든든한 토대가 있음. 그 위에서 미래 60년 공동번영을 위한 Next Step을 착실히 밟아나아가기를 희망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명예회장	❶ ‘좋은 사회 없이 경제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나친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생태계 붕괴, 격차 확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제안 - 쉼새대형 사회보장, 환경에너지, 지역경제사회, 가치 창출, 교육·연구·노동, 경제외교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거시경제 운영 등 ❷ 일본은 안전보장면에서 구조적 적자국가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지진 등 자연재해, 최근의 국제질서의 붕괴와도 직면 ❸ 지금까지 이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극동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로의 강점을 살려 경제연계를 심화함과 동시에 CPTPP 등 동지국과의 다자간 연계를 통해 국제질서를 재구축
(신산업회의 보고)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	❶ 지난 3월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6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는 양국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정계에 이어 경제계에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계기 ❷ (1세션) 권순박 SBJ은행 대표이사가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및 교류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스타트업간 협력을 양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협력 구조로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발표 ❸ (2세션) 김영선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님께서 ‘시니어 산업 전망 및 핵심 아젠다’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복지의 문제를 넘어 산업과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 ❹ 한일 양국이 통상과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민생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보다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면, 한일 협력은 크게 도약 가능

일한경제협회 아소 유타카 부회장	❶ (1세션)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께서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한일 양국은 국익에 대한 일치도가 높아 대화의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공통과제는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 ❷ (2세션)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서울사무소장께서 ‘오키나와현의 주요활동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오키나와현 자체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아시아 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침 등을 설명 ❸ 신산업무역회의에서 나온 제언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써 매우 중요하며, 추후 실현 가능한 제언으로서 정리 될 수 있기를 기대
(세션1)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윤 덕 민 석좌교수 (前 주일한국대사)	「어떻게 한일경제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❶ 한일 경제공동체의 기대 효과 - 경제적 규모 : GDP 약 6조 달러(2025년) 규모의 세계 4위 경제 블록이 형성 - 거대 시장 : 약 1억 7,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 - 글로벌 위기 대응 : 강력한 첨단기술 기반과 공급망 확보, 에너지 안전(신재생, 수소, SMR 등)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국제 사회의 'Rule Setter'로 도약 ❷ 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이유 - 국제 질서 변화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언과 자유무역 질서 붕괴, 강대국 정치의 부활에 대응 - 중국의 부상 : 'Made in China 2025' 등으로 한일 산업 경쟁력 상실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 - 지정학적 리스크 : 대만 해협 유사 가능성, 북핵 문제 등 증대되는 안보 위협에 직면 - 사회적 변화 :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최근 한일 양국 국민 간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을 추월 ❸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방안 - 네트워크 통합 : 단순 관세 철폐를 넘어 에너지, 노동, 기술 등 '경제적 혈관'을 잇는 통합을 지향 (ex. 에너지 공동구매, 인재 자유활용, 첨단기술 공동개발 등) - 제도적 기반: CPTPP가입, 포괄적 디지털 경제협력, 기술표준 상호 인증, 사회보장 네트워크 등을 추진 - 병행 과제: 과거를 잊지 않는 화해 프로세스를 지속하고, 한미일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하며, 호주·아세안으로 확장 가능한 '열린 공동체'를 목표

신한은행 김 재 민 글로벌사업그룹장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 ❶ 한일 스타트업 현황 및 협력의 중요성 - 한일 스타트업 현황 : ·韓 : 핀테크, AI, 커머스 분야 강세, 유니콘 22개사 보유 (성숙기) ·日 : 딥테크,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이 강점, 유니콘 100사 목표 - 스타트업 협력의 중요성 :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공통된 사회적 문제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경제적 공감대가 형성 ❷ 한일 스타트업 협력 이유 - 실리적 이익과 비즈니스적 공동성장 가능한 파트너 : ·상호보완적 기술과 시장구조 ·인재 선순환을 통한 시너지 창출 ·상호투자 증가와 자본의 선순환 ·동일한 목표와 공동고민 - 임팩트 스타트업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 양국 시장에 교차 진출하여 시장 가치 창출 (ex. 고향납세 연계, 전동 휠체어 개발 등) ❸ 향후 한일 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 방안 - 2023년부터 교류가 태동하기 시작, 2026년부터 본격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민간 협력 : 정부 자금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대기업과 금융사가 실질적인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
아세아대학 오쿠다 사토루 교수	「국제환경 변화를 전망한 향후 한일 경제 협력의 방향」 ❶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 미중 대립과 트럼프 관세 : 공급망 재편 리스크 부상 - 미들파워의 결집 : 미들파워의 핵심은 한일 ❷ 한일 경제협력의 가능요인(각각의 사정) - 일본시장 재평가 필요성(한국 사정) : 한국에게 일본은 마지막 수출 프론티어, 일본시장 성공은 한국경제 재도약 계기 - 대한무역 흑자의 가치(일본 사정) : 2000년대 경제성장의 7%가 대한무역흑자에 기인, 저성장국면의 일본, 한일무역은 안정적 하방 지지요인 - 한일간 산업내 무역 확대 : 상대국 생산물을 자국 생산체계에 깊이 편입, 한일간 분업체계의 심화, 발전단계, 경제구조 유사성 ❸ 한일 경제협력의 지향점 - 자유무역 이익 수호를 위해 한일은 위기를 극복해야 함 - 한국 : 국내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개혁 필요 - 일본 : 광역경제권을 주도하는 대국적 시각

간세이가쿠인대학 시부야 가즈히사 교수	「CPTPP ~「살아있는 협정」(Living Agreement)」 ❶ 일본의 TPP 참가 의의와 교섭 - 일본의 TPP 참가 의의 ·미국, 특히 자동차시장 수출확대 ·다자교섭으로 공격과 방어 전략 가능 ·TPP 규정은 향후 세계표준이 될 규칙인 바, 초기부터 참가해 일본 입장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총리 직속 TPP정부대책본부 설치, 관계부처의 본부 요원을 집결 ❷ CPTPP - CPTPP는 TPP가 끊임없이 진화한 살아있는 협정 - High Standard 충족할 준비가 된 국가는 신규가입 가능 - 항상 최고의 협정으로 남기 위해 협정내용 지속 업그레이드 - 신규가입에 관한 오کل랜드 원칙(2021년) ·협정의 High Standard를 충족 ·무역에 관한 Commitment 성실히 준수해 온 실적 ·CPTPP 참가국들 합의에 의해 결정 - 現 가입요청국 : 우루과이,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❸ 다카이치 재팬의 시정방침(2026.02월) -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 유지·확대는 일본 경제외교의 핵심축 - CPTPP는 높은 수준을 견지하면서 체약국 확대 및 협정 개정 추진, 아세안 및 EU와의 추가연계 가능성 모색
(세션2)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 강 호 교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 「초고령사회 대응 해법: Age-Tech와 한일협력」 ❶ 유일한 글로벌 성역 ‘초고령사회 데이터’ - 범용 AI시장은 포화상태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가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블루오션은 Age-Tech 분야임 - 한일 양국의 기회 : 2,456억불 규모의 메가트렌드 - 가장 먼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선행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국가가 글로벌 경쟁력을 독점 ❷ 한일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4대 실행 협력 모델 - 공동실증 : 한국의 첨단기술을 일본의 풍부한 현장에 투입하여 빠른 검증 수행 - R&D컨소시엄 : 초고령사회에 특화된 AI, 행동데이터 분석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개발 - 표준인프라 : 글로벌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Haas기반 플랫폼 공동 구축 - 공동펀드 : 양국의 자본을 결합해 유망한 Age-Tech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생태계 펀드 조성

	- 한국(기술엔진)x일본(시장플랫폼)= 대체불가능한 HaaS 생태계 완성 ❸ 한일 2035년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는 3단계 로드맵 - Phase1(~2027) : 한일 공동실증. 국가 간의 데이터 규제 차이를 ‘공동표준화’로 극복, 성공 레퍼런스 확보 - Phase2(~2030) : 검증된 HaaS모형을 수출 - Phase3(~2035) : 축적데이터 바탕으로 글로벌 장악
한국여행업협회 이진석 회장	「한일관광교류 현황과 미래발전 방안」 ❶ 한일 관광 트렌드의 변화 - 개별화(FIT) : 초개인화(나만의 여행 추구), 디지털화 - 경험 중심 : 가격중심 → 가치중심(가심비), 관계형 관광 ❷ 한일 관광 협력 현황 - 한일관광진흥협의회 개최(1986~) : 한일관광교류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주도 협의체 -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 한중일 3국 상호 관광교류 확대 및 3국 협력강화 목표 -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❸ 한일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제언 - 상호 관광교류 확대 ·한국 지방공항 활성화 : 한일 지방간 노선확대 등 ·청소년 교육여행 확대 : 미래세대 교류확대 - 장거리 관광객 유치 확대 ·한일·한중일 공동관광상품 개발 ·한일·한중일 단일 관광권화(제도적 협력 필요)
와세다대학 겐마 마사히코 이사·교수	「교육 분야에서의 쌍방향 교류 - 한일판 에라스무스 구상 -」 ❶ 한일 인적교류의 중요성 - 인적교류에 있어서의 문제 : 저출생고령화, 사회문제 복잡화, 국제 이해의 부족 - 인적교류 중요성 : 제도가 아닌 사람이 신뢰를 쌓는다 ❷ 한일 인적교류 현황(업계 현황) - 한일 밀레니엄포럼 : 21회 지속, 4개대학 연계 - 캠퍼스아시아 : 학점 상호인정, 공동교육, 제도화된 교류 - 학생들도 이전보다 공감·이해·협력하고자 노력 - ‘언어는 장벽이 아니었다’, ‘같은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목소리 ❸ 한일 인적교류 제언 - 기존 캠퍼스아시아 틀을 활용함으로써 단계적 제도화 - 대화(포럼)→제도(캠퍼스아시아)→통합(한일 에라스무스) - 규모와 성과하는 관점에서 우선 한일이 가장 현실적

서울재팬클럽
세키지마 료이치
이사장

「SJC의 활동 및 미쓰이물산 한국 사업」

❶ SJC의 한일교류지원 활동

- 기부활동(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영화제작 등)
- 사회공헌활동(복지시설 아동 대산 기업 공장견학 등)
- 후원·협찬(한일축제한마당, 일본어 스피치대회 등)
- 한국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활동(기업의 인턴 수용)

❷ 미쓰이물산의 한국사업

- 한국미쓰이물산 1967년 설립, 종업원 114명
- 한국사업 사례 : LNG 안정공급을 위한 협력(삼성중공업),
탄소회수·활용·저장(CCUS) 허브 구축 가능성에 대한 공동조사 진행
(현대제철)
- 전국 학생 일본어 연극 발표대회 후원

❸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

- 공통과제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시장의 축소 등,
글로벌 시장을 내다본 사업전개의 중요성 증대
- 지속가능사회의 실현 : 한일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안정적 공급망 구축, 탈탄소)
- 한일의 지속적 연계 강화 : 가치창출 위한 인재의 지속 육성

□ (전체토론 코멘트.제언사항)

- 한일 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회의 논의 결과를 양국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단체 차원의 정책 제언 기능을 강화
 - 한일 경제공동체 논의를 지속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에 대응하여 한일 양국이 미들파워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공동 진출 및 투자 확대 추진
 -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신산업 분야 공동 투자 및 제3국 시장 진출 확대 필요
-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시 간 교류 플랫폼 구축, 공동 펀드 조성 및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 지원
 - 지역 기반 스타트업 협력 모델 발굴 및 금융권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필요
- 초고령사회 진전에 대응하여 AI·로봇·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에이지테크(Age-Tech) 분야의 한일 협력을 확대
 - 공동 실증사업, R&D 협력, 표준화 추진 및 전담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청년·미래세대 교류 확대를 통해 한일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 차원의 신뢰 기반을 강화
 - 대학 간 교류, 인턴십, 청년 포럼 및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등 제도적 교류 확대 필요
- 관광·문화·교육 분야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서비스 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
- 지방 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 모델 발굴
 - 빈집 활용, 지역 관광 활성화, 지방 대학 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과 외국인 인재 활용 환경 조성
 - 관광·비즈니스 목적 왕래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미래 한일관계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장학사업 및 펠로우십 프로그램 확대
 - 청년 연구자와 차세대 리더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조성 필요

2. 한국 측 단장단 일본 정부기관 예방

가. 예방시간 및 예방 대상 :

5월 18일(월) 14:20 ~ 15:30, 5월 19일(화) 09:20 ~ 10:45

예방일정	예 방 처	성 명	비고
5월 18일(월)			
14:20~14:40	일한의원연맹 회장	다케다 료타 / 武田 良太	제1의원회관
15:15~15:30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 高市 早苗	총리관저
5월 19일(화)			
09:20~09:40	외무 부대신	호리이 이와오 / 堀井 巖	외무성
10:20~10:45	경제산업 부대신	이노 토시로 / 井野 俊郎	경산성

나. 예방자 : 구자열 단장 등 한국 측 단장단 17명

(구분 및 성명 가나다 順)

NO	성 명	소속·직책
1	구 자 열 (具 滋 烈)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주)LS 이사회 의장
2	이 혁 (李 赫)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5/18 예방만 참여
3	구 자 균 (具 滋 均)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S일렉트릭(주) 회장
4	구 자 은 (具 滋 殷)	(주)LS 회장 ※특별참가
5	권 대 열 (權 大 烈)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주)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6	김 동 욱 (金 東 昱)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현대자동차(주) 부사장
7	김 형 석 (金 炯 錫)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남해종합건설(주) 부회장
8	명 노 현 (明 魯 賢)	(주)LS 부회장 ※특별참가
9	서 석 숭 (徐 錫 崇)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0	서 형 원 (徐 亨 源)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케이디마켓(주) 회장
11	신 동 빈 (辛 東 彬)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롯데그룹 회장
12	신 형 구 (愼 亨 九)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대행 포스코재팬(주) 사장
13	이 인 호 (李 仁 浩)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신산업무역회의의 체어맨
14	이 재 언 (李 在 彦)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대행 삼성물산(주) 사장
15	이 형 희 (李 亨 熙)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주)SK 부회장
16	정 상 혁 (丁 相 赫)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대행 (주)신한은행 은행장
17	최 윤 (崔 潤)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OK금융그룹 회장

※ 일한경제협회 배석 및 안내자 : 고지(小路) 회장, 우치다(内田) 전무이사, 츠츠미(堤) 상무이사, 스도(須藤)

※ 통역 및 수행 : 최은주 통역사, 한일경제협회 서광현 사무국장, 이유경 차장, (주)LS 광문신 차장

※ 대사관 측 배석 : 정경록 상무관, 박성수 상무관보

다. 예방 시 발언내용

일본 정부부처 예방 일정(5/18월~19화) 및 주요 내용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내각총리대신>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1969년부터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되는 일이 없이 지속 개최해 온 점에 경의를 표함 ○ 한국 측 대표단의 방일을 환영하여, 양호한 한일관계 기조를 지탱하는 경제계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함 ○ 19일부터 진행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결실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길 기대함 함
<다케다 료타(武田 良太) 일한의원연맹 회장> ○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안동에 방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본 도쿄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함 ○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관계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지만, 경제인들은 교류를 지속해 온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함 ○ 지금과 같은 유대관계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야 함. 특히 지역간 교류 및 청소년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호리이 이와오(堀井 巖) 외무 부대신> ○ 한일·일한 양국 경제협회가 오랜 기간 동안 경제발전에 공헌해 온 점에 경의를 표함 ○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안동을 방문하는데, 다카이치 총리와는 같은 나라현 출신이라 함께 정치생활을 해 옴. 양국 정상외 리더십으로 한일관계가 양호하여 여러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함 ○ 일본정부에서는 '파워 아시아'라는 제도를 구상 중으로, 에너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한일 + 동남아 협력체제를 구상하고 있음. 한일은 지정학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있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중요함
<이노 토시로(井野 俊朗) 경제산업 부대신 겸 내각 부대신> ○ 한일은 이웃나라이고 양국 모두 세계정세에 민감한 국가임. 한일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경제산업성은 국가/국민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경제인 협력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이 잘 협력하도록 하겠음 ○ 한국 안동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도 다루겠지만, 석유 관련 협력심화 및 핵심광물 서플라이체인 재구축이 중요함. 한일과 같이 동맹국이 함께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한일경제인회의 본회의이서도 공급망 관련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함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 올 해 2월 한일경제협회 회장에 취임하였음 ○ 1969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해 온 한일경제인회의가 2년 후에는 회갑의 나이를 맞게 되어,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고 있음 ○ 금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정상회담과 같은 날 도쿄에서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의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작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에 1,300만명의 상호 방문하는 등,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일관계는 더 긴밀해 질 것이라고 믿음. 한일 경제계에 바라는 제언과 기대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음

〈고지 아키요시(小路 明善) 일한경제협회 회장〉

- 예방을 수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방하는 분들은 한일경제인회의의 대표단임
- 한일경제인회의는 올 해로 58회를 맞이하였으며, 양국 관계가 소원했을 때도 중단없이 계속 개최해 옴
- 경제, 인재, 문화교류가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이 될 것임. 양국 경제인들이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음

3.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종합평가

-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의 유지·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50명에 이르는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일본 개최 시 한국 측 참가자가 최다인원을 기록하는 등, **양국 경제계의 한일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 일본 개최 시 한국 측 참가인원 : ('18) 114 → ('24) 107 → ('26) 137
- 작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Chapter로 나아가기 위해 양국 경제인은 연계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 한국의 CPTPP 가입과 일본의 지지
 - AI와 디지털, Age-Tech, 스타트업 협력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자유롭고 원활한 왕래를 촉진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의 조기 실현
- 양국 경제협회장이 처음으로 단장을 맡아 개최된 회의로서, ‘함께 나아가는’ 경제인들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250명에 달하는 양국 경제인들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
- 한국에서는 정상회담, 일본에서는 경제인회의가 개최되어 더욱 주목을 받는 회의가 되었으며, 현재 **한일의 우호 관계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양국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었음
 - 지나온 6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60년의 한일 협력을 시작하는 첫발을 내딛는 회의

□ 향후 후속조치 계획

- (1)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제작, 발송
- (2) 대정부 공동성명서 제출
- (3) 제5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일정·장소 확정 및 논의 의제 선정

[첨부분서]

1.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1부.
2.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1부.
3.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주요참가자 1부.
4.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기사 모음 1부.
5.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1부. 끝.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6년 5월 19일부터 20일 이틀 간 일본국 도쿄도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단장 등 137명,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小路 明善) 단장 등 113명이 참가했다.

세계경제는 자국제일주의의 대두 등에 기인한 지경학(地經學)적 긴장이 고조되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결과 에너지 및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에 대한 취약성이 현저히 드러나고 경제안보의 기반이 크게 흔들림과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후순위가 되는 등 여러 과제가 동시에 중첩되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안정된 외교관계와 상호이해 진전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구축하고 있다. 한일 경제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양국의 연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높이고,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공헌하는 것이 한일 양국이 완수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테마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기로 합의하였다.

- 다 음 -

1.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의 유지·강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의 유지·강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한일경제공동체 구성 등의 논의를 토대로 한일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높이고, 경제질서의 유지·안정화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CPTPP는 세계적 규모의 다국 간 경제연계의 중요한 틀이며, 한일 양국 경제인은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과 그 실현을 향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2.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양식 및 사회구조 그 자체를 크게 바꾸고 있다. 미국·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이러한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양국 간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3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 AI·디지털, Age-Tech 등 신산업분야의 육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과제 해결의 양립을 목표로 한다.

3. 미래로 이어지는 신뢰의 유대

지속적인 한일연계의 기반은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과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지속에 있다. 한일의 차세대를 젊어질 젊은이들이 이른 시기부터 서로를 알고 함께 배우며 교류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역 한일 경제인의 중요한 사명이다. 대학 간 학위·학점 상호인증 등 상대국에서 배우기 쉬운 환경으로 정비함과 함께, 자유롭고 원활한 왕래를 촉진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의 조기실현을 제창하며, 지속적인 한일연계의 기반을 가일층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다음 제59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7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

2026년 5월 20일

한국 측 대표단 단장 구 자 열
일본 측 대표단 단장 小路 明善

첨부 2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 일시·장소 : '26. 5. 18(월) ~ 21(목) / 日 도쿄, 더 오키라 도쿄

□ 주 제 :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

시 간	주요 내용
5월 18일(월) : 한국 측 단장단 출국 / 예방활동	
08:40~10:45	□ 한국 측 단장단 출국 : 김포 → 하네다 (OZ1085)
09:00~11:20	□ 한국 측 단장단 출국 : 김포 → 하네다 (KE2101)
12:30~13:40	□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주최 단장단 오찬 : 7F 첼시 (Chelsea)
《 일본 주요 정부기관 예방 I 》	
14:20~14:40	□ 다케다 료타(武田 良太) 일한의원연맹 회장 예방 (중의원 제1의원회관)
15:15~15:30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내각총리대신 예방 (총리관저)
17:00~19:00	□ 이 혁(李 赫)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주최 만찬 (대사관저)
5월 19일(화)	
《 일본 주요 정부기관 예방 II 》	
09:20~09:40	□ 호리이 이와오(堀井 巖) 외무 부대신 예방 (외무성)
10:20~10:45	□ 이노 토시로(井野 俊郎) 경제산업 부대신 예방 (경제산업성)
《 개회식 》	
14:30~14:40	□ 개회 : 2F 오차드 (Orchard)
14:40~14:50	□ 기념촬영 (한·일 양국 단장단 및 주요인사자 등단)
개회사 14:50~15:10	▶ 日단장 : 고지 아키요시(小路 明善)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주) 회장 ▷ 韓단장 : 구 자열(具 滋烈)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주)LS 이사회 의장
내빈인사 15:10~15:30	▶ 日내빈 : 다케다 료타(武田 良太) 일한의원연맹 회장 ▷ 韓내빈 : 이 혁(李 赫)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 최 영배(崔 暎培) 경제공사 대독
《 기조연설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제언·보고 》	
기조연설 15:30~16:10	▶ 일본 :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일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스미토모화학(주) 상담역·(일사)일한경제협회 상담역 ▷ 한국 : 류 진(柳 津) (사)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 김 창범(金 昌範) 상근부회장 대독
신산업무역회의 제언·보고 16:10~16:30	▶ 日체어맨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대표이사 회장·(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韓체어맨 : 이 인호(李 仁浩)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16:40~16:50	□ 커피 브레이크 : 2F 오차드 (Orchard) 로비
《 한일 양국 공동주최 환영리셉션 》	
17:00~18:30	□ 한일 양국 공동주최 환영리셉션 : 7층 메이플 (Maple)
《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주최 만찬 : 단장단((사)한일경제협회 회장단) 초청 》	
17:45~20:00	□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주최 만찬 : 41F 에뚜알 (Létoile)

시 간	주요 내용
5월 20일(수) : 제1세션·제2세션 / 공동성명(안) 심의회 / 폐회식 / 공동기자회견	
《 제1세션 :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 (20분×4명)	
09:00~11:30	■ 日좌장 : 이와다레 요시히코(岩垂 好彦) 코디네이터 / 오비린대학 준교수
09:05~09:25	▶일본 측 발표① : 오쿠다 사토루(奥田 聡) 아시아대학 교수 발표주제 : 「 국제환경 변화를 전망한 향후 한일 경제 협력의 방향 」
09:25~09:45	▷한국 측 발표① : 윤 덕민(尹 德敏)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前주일한국대사 발표주제 : 「 어떻게 한일경제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
09:45~10:05	▶일본 측 발표② : 시부야 카즈히사(澁谷 和久) 간세이가쿠인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 前내각관방 TPP 등 정부대책본부 정책조정총괄관 발표주제 : 「 CPTPP~「살아있는 협정」(Living Agreement) 」
10:05~10:25	▷한국 측 발표② : 김 재민(金 載玟) (주)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장 발표주제 : 「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 」
10:25~11:30	□ 질의·의견교환, 좌장 총괄
《 공동성명(안) 심의회 및 오찬교류회 》	
11:45~13:10	□ (단장단) 공동성명(안) 심의회 : 41F 에두알 (L'etoile) *단원 : 7F 메이플 (Maple)
《 제2세션 :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 》 (20분×4명)	
13:20~15:40	□ 韓좌장 : 염 재호(廉 載鎬) 태재대학교 총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3:25~13:45	▶일본 측 발표① : 겐마 마사히코(弦間 正彦) 와세다대학 이사·교수 발표주제 : 「 교육 분야에서의 쌍방향 교류 -한일판 에라스무스 구상- 」
13:45~14:05	▷한국 측 발표① : 이 강호(李 康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발표주제 : 「 초고령사회 대응 해법 : Age-Tech와 한일협력 」
14:05~14:25	▶일본 측 발표② : 세키지마 료이치(関島 亮一) 서울재팬클럽 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발표주제 : 「 SJC의 활동 및 미쓰이물산 한국 사업 」
14:25~14:45	▷한국 측 발표② : 이 진석(李 振錫) (사)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발표주제 : 「 한일관광교류 현황과 미래발전 방안 」
14:45~15:40	□ 질의·의견교환, 좌장 총괄
15:40~16:00	□ 커피 브레이크 : 2F 오차드 (Orchard) 로비
《 폐회식·공동기자회견 》	
16:00~16:10	□ 공동성명 채택
단장 폐회인사	▷韓단장 : 구 자열(具 滋烈)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주)LS 이사회 의장
16:10~16:20	▶日단장 : 고지 아키요시(小路 明善)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주) 회장
16:20	□ 폐회
16:30~17:00	□ 공동 기자회견 : 7F 첼시 (Chelsea)

첨부 3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주요 참가자

□ 한국 측 주요 참가자

구분별 성명 가나다 순

NO	참가자명			소속/부서	직함
	한글	한자	영문		
1	구자열	具滋烈	Christopher KOO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주)LS	회 장 이사장 이사회위원장
2	김창범	金昌範	KIM Chang-Beom	(사)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3	구자균	具滋均	KOO Ja-Kyun	(사)한일경제협회 LS일렉트릭(주)	부회장 회 장
4	권대열	權大烈	KWON Dae-Yeol	(사)한일경제협회 (주)카카오	부회장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5	김동욱	金東昱	KIM Dong-Wook	(사)한일경제협회 현대자동차(주)	부회장 부사장
6	김형석	金亨錫	KIM Hyung-Suek	(사)한일경제협회 남해종합건설(주)	부회장 부회장
7	박정원	朴廷原	PARK Jeong-Won	(사)한일경제협회 두산그룹	부회장 회 장
8	서형원	徐亨源	SEO Hyung-Won	(사)한일경제협회 케이디마켓(주)	부회장 회 장
9	신동빈	辛東彬	SHIN Dong-Bin	(사)한일경제협회 롯데그룹	부회장 회 장
10	이형희	李亨熙	LEE Hyung-Hee	(사)한일경제협회 SK(주)	부회장 부회장
11	신형구	愼亨九	SHIN Hyeong-Gu	(사)한일경제협회 포스코재팬(주)	부회장 대행 대표이사사장
12	이재언	李在彦	LEE Jae-Eon	(사)한일경제협회 삼성물산(주)	부회장 대행 대표이사 사장
13	장희재	張熙載	JANG Hee-Jae	(사)한일경제협회 한화재팬(주)	부회장 대행 대표이사
14	정상혁	丁相赫	JUNG Sang-Hyuk	(사)한일경제협회 (주)신한은행	부회장 대행 은행장
15	최 윤	崔潤	CHOI Yoon	(사)한일경제협회 OK금융그룹	부회장 회 장
16	서석송	徐錫崇	SEO Seok-Soong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상근부회장 전무이사
17	구자은	具滋殷	KOO Ja-Eun	(주)LS	회장
18	명노현	明魯賢	MYUNG Roe-Hyun	(주)LS	부회장
19	이 혁	李 赫	LEE Hyuk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20	최영배	崔暎培	CHOI Young-Bae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공사
21	이인호	李仁浩	LEE Inho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사)한국무역협회	체어맨 상근부회장
22	염재호	廉載鎬	YEOM Jae-Ho	태재대학교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총장 제2세션 좌장
23	윤덕민	尹德敏	YUN Duk-Min	한국외국어대학교 前주일본국대한민국	석좌교수 특명전권대사
24	김재민	金載玟	KIM Jae-Min	(주)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25	이강호	李康鎬	LEE Kang-Ho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26	이진석	李振錫	LEE Jin-Seok	(사)한국여행업협회	회장

□ 일본 측 주요 참가자

구분별 일본 측 기재 순

NO	성 명			회사·단체명 / 직위
	한글	한자	영문	
1	고지 아키요시	小路 明善	KOJI Akiyoshi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아사히그룹홀딩스(주) 회장
2	아소 유타카	麻生 泰	ASO Yutaka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아소시멘트(주) 대표이사회장
3	이미즈 하루히로	井水 治博	IMIZU Haruhiro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주)일간공업신문사 상담역
4	나루세 마사하루	成瀬 正治	NARUSE Masaharu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주)호텔오쿠라도쿄 대표이사회장
5	가타오카 토모히코	片岡 智彦	KATAOKA Tomohiko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도레이인터내셔널(주) 대표이사사장
6	구로이시 쿠니노리	黒石 邦典	KUROISHI Kuninori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마루베니(주) 고문
7	효도 마사유키	兵頭 誠之	HYODO Masayuki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스미토모상사(주) 이사회장
8	이와타 케이이치	岩田 圭一	IWATA Keiichi	(일사)일한경제협회 자문위원회 부회장 스미토모화학(주) 대표이사회장
9	다케무라 아키토시	竹村 章敏	TAKEMURA Akitoshi	(일사)일한경제협회 자문위원회 부회장 도요타자동차(주) 인도·중동·동아시아·오세아니아본부 총괄부장
10	나가이 코지	永井 浩二	NAGAI Koji	(일사)일한경제협회 자문위원회 부회장 노무라홀딩스(주) 이사회장
11	다케다 료타	武田 良太	TAKEDA Ryota	중의원의원 일한의원연맹 회장
12	도쿠라 마사카즈	十倉 雅和	TOKURA Masakazu	(일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 (일사)일한경제협회 상담역 스미토모화학(주) 상담역
13	오쿠다 사토루	奥田 聡	OKUDA Satoru	아시아대학 교수
14	시부야 카즈히사	澁谷 和久	SHIBUYA Kazuhisa	간세이가쿠인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 前내각관방 TPP 등 정부대책본부 정책조정총괄관
15	겐마 마사히코	弦間 正彦	GENMA Masahiko	와세다대학 이사(국제부문 총괄담당) 교수(박사)
16	세키지마 료이치	関島 亮一	SEKIJIMA Ryoichi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 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17	이와다레 요시히코	岩垂 好彦	IWADARE Yoshihiko	오비린대학 준교수

朝鮮日報

구자열 한일경제협회장 "한국, CPTPP 신청 가능성 높아"



구자열 한일경제협회장(LS그룹 이사회 의장)이 20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한일경제인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더 긴밀한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 협정(CPTPP)에 가입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일 경제인들은 지난 18일부터 도쿄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 경제계는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 유지, 강화”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미래로 이어지는 신뢰의 유대” 방침을 확인하고, 한일 경제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경제계는 “CPTPP는 세계적 규모의 다국간 경제연계의 중요한 틀”이라며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과 그 실현을 향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측 회장인 코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은 “한국이 가입을 신청하면 일본 경제계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시작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뒤 일본이 중심이 돼 11개국이 재구성한 협정이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칠레, 페루, 브루나이, 영국 등이 가입해있다.

이날 구자열 회장은 “그동안 한일 관계는 굴곡이 있었지만, 한일 경제인들은 끊임 없이 신뢰를 갖고 회의를 이어왔다”며 “한일은 협력함으로써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일이 함께 ‘넥스트 스텝’으로 한단계 더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는 경제인의 의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 측 코지 회장은 “이번 경제인 회의에서 현실적이며 전향적인 제안이 많이 나왔다”며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번 일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정과 신뢰를 심화한 것은 의미가 크며, 경제계는 적극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광물 확보·AI 발전에 한일 협력 중요”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19일 일본 도쿄 더오쿠라도쿄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단장인 구자열(LS 이사회 의장)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전력 인프라와 핵심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로봇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도 “한일 협력의 가치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경제 안보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핵심 광물 확보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2026.05.20.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한일 관계는 순망치한”…한일 경제인 300명 도쿄 집결해 협력 논의

58회 한일경제인회의, 日 도쿄서 개최
양국은 ‘경쟁과 보완의 관계’로 진화 중
에너지·전력 인프라와 자원 공급망
AI·로봇 협력 위해 양국 인재 머리 맞대야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인 300여명이 일본 도쿄에 모여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경제인들은 일본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19일 한일경제협회는 도쿄 ‘더 오쿠라 도쿄’에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제 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회의는 한일 경제협회 양측 회장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양국 경제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1969년 시작된 한일경제인회의는 정치·외교 갈등과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은 양국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나가이 코지 노무라홀딩스 회장 등이 자리했다.

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한국 안동에서는 한일 정상외교가 펼쳐지고 있고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기원전부터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과 일본은 좁은 물길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자 글로벌 가치사슬을 함께 구축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며 “정치·외교분야에서의 우호적 관계를 배경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은 연간 1300만명의 인적교류와 더불어 더욱 넓고,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로 에너지·전력 인프라, 핵심 광물 및 자원 공급망, 인공지능(AI)·로봇 협력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전력·통신 인프라 안보 협력 체계를 재구축할 시기”라며 “핵심 광물 공동 투자와 제조업 기반의 공급망 동맹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역량과 일본의 로봇·정밀기계 기술이 결합하면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회장도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며 한일 협력의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인들이 완벽한 선택만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넥스트 스텝’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일 관계를 “경쟁과 보완의 관계”라고 규정하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첨단 제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이 경쟁하면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다.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하루 전날 한국 경제인 대표단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한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경제인들은 면담에서 양국 정상 간 우호 분위기를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58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일에는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이어진다. 이후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일 재계 “韓은 CPTPP 가입 추진, 日은 적극 지원해야”

19~20일 日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서 韓의 CPTPP 가입 지지
미래 세대 교류 위한 대학 학위·학점 인증
출입국 간소화·시스템화 조기 실현도 요청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19일부터 양일간 일본 도쿄 ‘더 오쿠라 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일 폐막식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그동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표현이 이번에는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현을 향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까지 명시됐다. 사실상 한국 재계는 물론이고, 일본 재계도 한국의 CPTPP 가입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위험 확대 속에서 “한일이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CPTPP를 ‘세계적 규모의 다국간 경제연계의 중요한 틀’로 규정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일이 규범 기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자 통상체제 안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계 입장에서도 CPTPP는 단순한 통상협정을 넘어 공급망·디지털무역·에너지 협력까지 포함한 경제안보 플랫폼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블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성명에는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도 담겼다. 양측은 “한일의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이른 시기부터 서로를 알고 배우며 교류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 간 학위·학점 상호 인증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시스템화의 조기 실현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한일 청년들의 이동과 유학, 취업, 공동 연구를 제도적으로 연결 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일 양국 모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재 부족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교류를 경제협력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에이지테크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업을 요청했다. 특히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이 앞서가는 가운데 한일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여기에 대응하는 ‘제3의 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회의는 한일 양국 경제협회 회장이 모두 교체된 뒤 처음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국 측은 김윤 회장에 이어 구자열 회장이 처음 대표단을 이끌었고, 일본 측도 사사키 미키오 체제 이후 고지 아키요시 회장이 처음 전면에 나섰다. 한국 측에서는 137명, 일본에서는 113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의 내용뿐 아니라 분위기 면에서도 이전 회의와 차이를 보였다. 최근 2~3년간은 ‘관계 복원’과 ‘새로운 파트너십’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제안보·통상규범·첨단산업·인재교류 같은 미래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장은 “한일 경제계의 무게중심이 이제는 관계 개선을 넘어 한일경제공동체 구상과 같은 공동 생존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5.20. 이승훈 기자 thoth@mk.co.kr

한일 경제인들, 정상회담일 도쿄서 모여 협력방안 논의

한일경제인회의 사흘간 개최...韓경제인들, 전날 다카이치 총리 만나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한국 안동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19일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함께 이날 도쿄 더오쿠라도쿄 호텔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올해 회의는 '한일이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주제로 해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이날 열린 개회식에는 한국의 일본의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1969년에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69년 첫 회의 이래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등에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최영배 주일한국 대사관 경제공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 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다케다 료타 일한 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자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외교, 이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한국 측 경제인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 정상들의 우호 협력과 관련해 양국 경제인도 큰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58년간 이어져 온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향해 노력해 줄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며 양국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소통과 협력을 이어온 경제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한일경제협회는 전했다.

회의 둘째 날인 20일에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본회의가 열리며, 양국 경제인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2026.05.19.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

연합뉴스

한일 경제인들 "韓 CPTPP 가입논의 진전시켜야"… 경제협력 한뜻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서 공동성명 채택…AI 분야 협력도 강조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세계 경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20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에너지 및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에 대한 취약성이 현저히 드러나고 경제 안보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의 유지·강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안정된 외교관계와 상호 이해 진전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 등의 논의를 토대로 한일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해 국제사회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높이고, 경제질서의 유지·안정화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다짐했다.

한일 경제 협력 방향의 구체적인 예로는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들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한일 경제인들은 "CPTPP는 세계적 규모의 다국 간 경제 연계의 중요한 틀"이라면서 "한일 양국 경제인은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과 그 실현을 향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은 공동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면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은 "기본적으로 CPTPP 가입은 한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일본이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이 가입한다면 일본 정·재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가입하면 다자간 협력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경제인들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이 AI 등 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연대를 통해 제3의 축을 만들고, 신산업 분야를 육성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지 회장은 "일국 우선주의에 빠지지 않고 양국의 강점을 내놓고 연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경제인들은 사태의 장기화가 한일 경제 모두에 직격탄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고지 회장은 "일본은 원유 국가 비축분을 방출하고 한국은 대체조달 공급처를 찾는 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양국이 대책을 공유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日 다카이치 총리 만난 구자열 한일경제협회장 “양국 에너지·광물·로봇 협력해야”

도쿄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전날 日 총리 예방…양국 경제협력 강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정상 회담에 나선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는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렸다.

한일경제인협회와 일한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 2월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에 선임된 구자열 회장은 취임 후 첫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며 “올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자열 회장은 “양국의 공통 도전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및 자원공급망 협력 ▷AI·로봇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석 남해종합건설 부회장, 서형원 경동시장 회장, 이재연 삼성물산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신형구 포스코재팬 사장, 장희재 한화재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등 13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경제인들은 전날인 18일 다카이치 총리를 예방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 경제인들을 만난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온 경제인들에게 경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한일 관계 악화나 경제위기, 자연재해에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왔다.

회의 둘째 날인 20일에는 양국 경제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할 예정이다.

2026.05.19.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이인호 무협 부회장 “한일, 공급망·통상질서 공동 대응해야”

19일 도쿄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이인호 부회장, 3월 신산업무역회의 결과 보고
스타트업·에이지테크·AI 돌봄로봇 등 협력 의제 제시
“CPTPP 기반으로 미래 통상질서 함께 설계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한일 경제계에 공급망 안정과 미래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제도적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신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부회장은 19일 일본 도쿄 더 오쿠라 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산업무역회의 보고 및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주최한 올해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제2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논의 결과를 소개하며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공급망 안정과 같은 경제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CPTPP와 같은 제도적 협력 기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한일 협력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한층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열린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이 같은 협력 의지가 정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CPTPP 등을 기반으로 양국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협력의 결과가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망·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 부회장은 한국 스타트업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본 현지 네트워크와 자금, 제도 측면에서 한계를 겪는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일본은 금융과 지역 네트워크, 공공정책 연계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양국이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기술과 일본의 금융·지역을 연결할 경우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스타트업과 투자, 기술, 금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준비 역량 강화 ▷정부의 마중물 투자와 민간 대기업 참여 공동펀드 조성 ▷한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일본 기업과의 협력 등이 실행 과제로 거론됐다. 양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교류사업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 기반 접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초고령사회 대응도 한일 협력의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이 부회장은 에이지테크를 시니어와 돌봄 인력을 위한 기술·서비스 전반으로 설명하며, 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에이지테크가 시니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연구와 글로벌 실증,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연구, 연구기관·기업·기술 표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돌봄로봇과 AI 분야 협력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로봇 소재 기술과 한국의 AI·통신 기술을 결합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목표와 일정에 기반한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AI와 서비스 품질을 결합하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한일 협력이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을 넘어 AI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양국이 유사한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산업과 기술, 제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차이는 조율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한일 양국이 통상과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민생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보다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면 한일 협력은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제58회 한일 경제인회의서 관광교류현황 발표

한국 지방공항 활성화로 한일 광관 불균형 해법으로 제시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로 미래세대 교류 강화 필요성 제기
한일 단일관광권역 구축으로 장거리 관광객 유치 제안



(서울=국제뉴스) 유지현 기자 =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해 '한일 관광교류 현황과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경제계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체로,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올해 58회째를 맞은 회의는 일본 도쿄 우리금융예식장에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양국 경제인 약 300명이 참가했으며,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에서도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진석 회장은 5월 20일 열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 세션에서 관광업계를 대표해 발표했다. 그는 양국 경제 협력 체계 내에서 인적 교류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한일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하지만 상호 방문객 수와 지역 편중 등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 지방공항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일 공항 및 항공노선의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일본은 지방공항과 노선이 활성화돼 여행 목적지 다양성이 확보되는 반면, 한국은 소수 공항에 집중돼 수도권 중심 관광 흐름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지방공항 활성화가 해법임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미래세대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구미주 등 장거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일, 한중일을 단일관광권역으로 만들어 역외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진석 회장은 한일 경제협력회의에 관광업계 대표가 참여해 관광 현황과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 경제계가 미래 협력을 논의하는 만큼, 관광 분야에서도 정책적 공조를 통해 실질적 관광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6.05.21. 유지현 기자 travelpress@naver.com

'셔틀외교' 복원 한일 경제인 도쿄 집결… AI·공급망 협력 본격화

양국 경제인 300여명 참석…에너지·AI·핵심광물 공동 대응 강조
日총리, 한국 측 단장단 이례적 접견…20일 공동성명 채택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국과 일본 정상이 안동에서 셔틀외교를 이어간 날, 양국 경제인들도 도쿄에 모여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과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홀딩스 회장 체제 이후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경제계는 에너지·공급망·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은 19일 일본 더오쿠라도쿄에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열고 있다.

구자열 회장(LS 이사회 의장)을 필두로 한국 측 단장단은 전날(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양국 정상들의 우호협력에 대해 양국 경제인도 큰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향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며 소통과 협력을 이어온 경제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바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이 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면서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공통 도전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및 자원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로봇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은 "지금은 변화의 시대다.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며 "경제인들이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날 오후 내각총리대신, 일한의원연맹 회장, 외무대신, 경산대신 등을 예방하고, 양국 경제인들도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둘째날인 20일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테마로 한 세션을 진행한 뒤 양국 경제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한다.

산업통상부 및 한국무역협회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구 회장을 단장으로 최영배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 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석 남해종합건설 부회장, 서형원 경동시장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신형구 포스코재팬 사장, 장희재 한화재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등 130여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아키요시 회장을 단장으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상담역, 나루세 마사하루 더오쿠라도쿄 회장, 가타오카 토모히코 도레이 인터내셔널 상담역, 구로이시 쿠니노리 마루베니 고문,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 상사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미토모화학 회장, 다케무라 아키토시 도요타 자동차 총괄부장, 나가이 코지 노무라홀딩스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6.05.19. 박기범 기자 pkb1@news1.kr

한일 재계 총출동...19일 도쿄서 공급망·첨단산업 논의

구자열·신동빈·박정원 등 총출동...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반도체·모빌리티·금융 협력 확대 모색...한일 정상회담과 맞물려 주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오는 19~20일 일본 더 오후라 도쿄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올해 회의 주제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으로 양국 경제계는 공급망과 첨단산업, 민간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겸 LS 이사회 의장과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개회식이 열리는 19일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정상회담과 대규모 민간 경제회의가 예정돼 있어 양국 재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회장을 단장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형희 SK그룹 부회장, 이재연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회장을 비롯해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명예회장, 나가이 코지 노무라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한국 측 단장단은 회의 하루 전인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해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 의미를 설명하고 양국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6.05.14. 서영욱 기자 syu@newspim.com

한일 기업인 300명 日 도쿄 집결…AI·로봇 공동 대응 선언

한일경제협회, 제58회 경제인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이끄는 한국 경제인 단장단이 일본 도쿄에서 최고경영자 회의를 열고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AI·로봇 산업 분야의 한일 민간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최고경영자들은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19일 한일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은 이날 일본 더오쿠라도쿄에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테마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과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개최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취임한 한국 측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과 지난해 6월 취임한 일본 측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이 사령탑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다. 양국 경제인은 한국 안동에서의 정상회담과 일본 도쿄에서의 최대 규모 민간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는 만큼 양대 행사에서 도출될 선언 내용과 민간 차원의 협력 성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 측 단장인 구자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바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서툰 외교, 이 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면서 "많은 분들이 한일 협력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니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는 한편 올 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구 회장은 "양국의 공통 도전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및 자원공급망 협력, AI·로봇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변화의 시대로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인들이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넥스트 스텝)를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자열 회장을 필두로 한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본회의 전날인 지난 18일 오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부처(내각총리대신, 일한의원연맹 회장, 외무대신, 경산대신)를 예방했다. 단장단은 양국 정상에 각 방면의 우호를 두텁게 하고 있는 만큼 경제인들도 큰 경제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양국 정상회담 하루 전날에 경제인들의 예방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총리는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향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면담에서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지속된 회의의 역사성이 높이 평가됐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민간 협력의 중요성이 거듭 공유됐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출동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회장을 단장으로 최영배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기조연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석 남해종합건설 부회장, 서형원 경동시장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신형구 포스코재팬 사장, 장희재 한화재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등 130여 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회장을 단장으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기조연설),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상담역, 나루세 마사하루 더오쿠라도쿄 회장, 가타오카 토모히코 도레이 인터내셔널 상담역, 구로이시 쿠니노리 마루베니 고문,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 상사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미토모화학 회장, 다케무라 아키토시 도요타자동차 총괄부장, 나가이 코지 노무라홀딩스 회장 등 100여 명이 배석했다.

회의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를 다루는 1세션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한 2세션 논의가 연이어 진행된다. 양국 경제인들은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최종 폐막할 예정이다.

2026.05.19. 김아영 기자 aykim@newspim.com

안동에선 정상회담, 도쿄에선 경제인 집결… 한일 협력 가속화

日 도쿄에서 한일경제인회의…기업인 300명 집결
구자열 회장·고지 아키요시 회장 취임 후 첫 회의
LS그룹 오너 및 롯데 신동빈, 두산 박정원 등 참석
같은 시각 경북 안동에서는 한일정상회담 진행



[서울=뉴스시스]박현준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과 경제인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며 협력 확대에 나섰다.

정치·외교와 민간 경제가 맞물린 가운데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향후 경제 협력의 폭과 속도가 한층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인 약 300명은 일본 도쿄 더오쿠라 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열렸으며, 에너지·전력 인프라, 핵심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과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 그룹홀딩스 회장)이 각각 새롭게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회의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 및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LS그룹 오너 일가의 동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구자열 회장이 한국 측 단장으로 회의를 이끈 가운데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등이 함께 자리하며 그룹 차원의 한일 경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회의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같은 날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양국 정상인 셔틀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계 역시 발맞춰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며 '투트랙 협력' 구도가 본격화 했다는 분석이다.

구자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도쿄에서 경제인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양국이 공통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AI·로봇 분야 협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회장도 "변화의 시대 속에서 한일 협력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인들이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시작된 이후 정치·외교 갈등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적인 민간 경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 경제인들은 미래 산업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026.05.19. 박현준 기자 parkhj@newsis.com

머니투데이

한일 경제인 300명 도쿄에 모였다…

"양국 관계 의미있는 발전"



한일 양국 경제인이 모여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경제인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일경제협회는 19일 일본 더오쿠라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첫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과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해마다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한일·일한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이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435,500원 ▲10,000 +2.35%) 이사회 의장)을 필두로 한국 측 단장단은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양국 정상들의 우호협력에 대해 양국 경제인도 큰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향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온 경제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경제인들의 예방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이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며 "많은 분들이 한일 협력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니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는 한편 올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공통 도전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및 자원공급망 협력 △AI(인공지능)·로봇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은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며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인들이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넥스트 스텝을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경제인들은 오는 20일에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2026.05.20.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CEO 열전] "삼성·현대차·롯데·LS 등 총출동"...한일 경제계, 도쿄서 '넥스트 스텝' 논의한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구자열)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도쿄에 있는 더오쿠라도쿄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양 협회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다음 행보)'을 주제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이다. 양국 경제계는 20일 '미래 경제연계'와 '지속가능 사회'를 주제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회식이 열리는 19일 한국에서 정상회담, 일본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민간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관심이 뜨겁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회장)을 단장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권대열 카카오 ESG총괄리더 ▲김형석 남해종합건설 사장 ▲서형원 경동시장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다케다 료타 일한 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 상사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미토모화학 회장 ▲다케무라 아키토시 도요타자동차 총괄 부장 ▲나카이 코지 노무라홀딩스 회장 ▲나루세 마사하루 더오쿠라도쿄 회장 등이 올 예정이다.

구 협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단장단은 회의 개최 하루 전인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의의 설명 및 양국 경제인들의 협력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조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6.05.14. 박제성 기자 press@megaeconomy.co.kr



"한일 경제협력 넥스트 스텝"...재계 총수들 도쿄 집결, AI·공급망 공조 본격화

"도쿄에 모인 韓日 재계 총수들"...AI·전력·광물 동맹 '넥스트 스텝' 시동
"갈등은 지나가고 공급망은 남았다"...58년 이어온 한일 경제라인 총집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일 양국 경제계가 정상외교 재개 흐름에 맞춰 AI·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정치·외교 갈등 속에서도 58년간 단 한 차례도 중단 없이 이어져 온 민간 경제협력 채널이 미래 산업 동맹의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19일 일본 도쿄 더 오쿠라 도쿄에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양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이 공통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전력 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AI·로봇 분야 협력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고지 아키요시 회장도 “변화의 시대일수록 한일 협력의 가치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경제인들은 회의 전날 일본 총리실과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을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했다. 일본 측 역시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교류가 지속돼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민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 OK 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 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 상사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미토모화학 회장 ▲다케무라 아키토시 도요타자동차 총괄 부장 ▲나가이 코지 ▲구로이시 쿠니노리 노무라 홀딩스 회장 등이 자리했다.

양국 경제계는 20일 ‘미래 경제연계’와 ‘지속가능 사회’를 주제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6.05.19. 박제성 기자 press@megaeconomy.co.kr

한일경제협회 “양국 에너지·광물·AI 협력 강화”

협회장 맡고 있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도쿄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개회사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경제인 회의에 참석해 한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한일경제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도쿄 더오쿠라도쿄 호텔에서 ‘한일이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양국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 의장은 전날 개회사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과제로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자원공급망 협력, 인공 지능(AI)·로봇 분야 협력을 꼽았다. 그는 “올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아사히(朝日)그룹홀딩스 회장(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며,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며 “경제인이 항상 완벽하게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넥스트 스텝’을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1969년 정례화됐다. 첫 회의 이래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코로나19 사태에도 중단 없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다.

2026.05.20.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도쿄서 만난 한일 경제인들.. 구자열 “전력·광물·AI 협력 필요”

도쿄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안동 한일정상회담 전날 日총리 예방



한국 안동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는 19일 일본 도쿄에서는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이날 도쿄 더오쿠라도쿄 호텔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을 대표하는 민간 경제 협의체로 1965년 국교 수립을 계기로 1969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 회의가 열린 1969년 이후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의 공백 없이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다.

올해 행사는 ‘한일이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주제로 내걸고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006260) 이사회 의장)을 필두로 최영배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000150)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035720)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다케다 료타 일한 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자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바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이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며 “양국의 공통 도전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핵심 광물 및 자원공급망 △로봇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측 고지 아키요시 회장은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고,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인들이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넥스트 스텝을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 측 경제인들은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 정상 간 우호 협력 기조에 발맞춰 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58년간 이어져 온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향해 노력해 줄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며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교류를 이어온 경제인들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회의 이틀째인 20일에는 경제 협력 의제를 다루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 말미에는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다.

2026.05.19.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한국 CPTPP 가입하면 일본이 지원”…한·일 경제인, 경제 안보 협력 맞손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세계 경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20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이틀간 이어진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에너지 및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에 대한 취약성이 현저히 드러나고 경제 안보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의 유지·강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경제공동체 구상 등의 논의를 토대로 한일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해 국제사회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높이고, 경제질서의 유지·안정화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다짐했다.

한일 경제 협력 방향의 구체적인 예로는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들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의제에는 오르지 않았다.

한일 경제인들은 “한일 양국 경제인은 한국의 CPTPP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과 그 실현을 향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은 공동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면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은 “기본적으로 CPTPP가입은 한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일본이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이 가입한다면 일본 정·재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가입하면 다자간 협력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거론됐다. 한·일 경제인들은 미국과 중국이 AI 등 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연대를 통해 제3의 축을 만들고, 신산업 분야를 육성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지 회장은 “일국 우선주의에 빠지지 않고 양국의 강점을 내놓고 연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전날 개회사에서는 “바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이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며 “양국의 공통 도전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해협 사실상 봉쇄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경제인들은 사태의 장기화가 한일 경제 모두에 직격탄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고지 회장은 “일본은 원유 국가 비축분을 방출하고 한국은 대체조달 공급처를 찾는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양국이 대책을 공유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5.20. 임성균·반진욱 기자 imsung@segye.com

SINGLE LIST

한일 경제인들, 日 도쿄서 협력방안 논의... 현대차·LS일렉트릭·롯데·두산 등 참여

한국 안동에서 한일정상회담 당일,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함께 19일 도쿄 더오쿠라도쿄 호텔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올해 회의는 '한일이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주제로 해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며 열린 개회식에는 한국의 일본의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1969년에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69년 첫 회의 이래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등에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최영배 주일한국 대사관 경제공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오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다케다 료타 일한 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자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외교, 이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한국 측 경제인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 정상들의 우호 협력과 관련해 양국 경제인도 큰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58년간 이어져 온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향해 노력해 줄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며 양국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소통과 협력을 이어온 경제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한일경제협회는 전했다.

회의 둘째 날인 20일에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본회의가 열리며, 양국 경제인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2026.05.19.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구자열 의장 "한일, 전력·광물·AI 협력 필요… 제2의 JAKO 프로젝트 만들자"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
전날 다카이치 日총리 예방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올해 한일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력·광물·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구 의장은 19일 일본 더 오후라 도쿄 프레ستی티타워에서 개최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이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 급속한 인구 고령화, 기후 위기, AI 패권 경쟁 등 시대적 공통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이다. 구 의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은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전력, 통신 인프라 안보협력 체계를 재구축할 시기"라며 차세대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도 'JAKO'와 같은 협력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JAKO 프로젝트는 양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함께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260km 규모의 해저 광케이블을 깔아 2027년까지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구 의장은 전력 인프라의 필수적인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희토류 보유 국가들이 점점 이를 무기화해 수출을 통제하고 전 세계 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한일 공동 핵심 광물 펀드 등을 조성해 장기 공급 계약으로 제조업 기반을 안정화하는 등 공급망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을 위한 AI·로봇 분야 협력을 꼽았다. 구 의장은 "한국은 스마트팩토리,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생산 운영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센서, 정밀기계, 제어와 안전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공동 실증을 추진하고, 공동 안전 기준과 테스트 프로토콜을 축적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구 의장을 필두로 한국 측 단장단은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 양국의 경제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한국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만난다. 한국 측 단장단에는 구 의장을 비롯해 구자은 LS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130여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변화의 시대고,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인들이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넥스트 스텝을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회의 둘째 날인 20일에는 양국 경제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한다.

2026.05.19.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韓재계, 다카이치 日 총리 예방..."양국 경제 협력 패키지 요청"

한국 단장단, 18일 오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日정부 인사 면담
다카이치 총리 "한일 간 우호 관계에 경제인들이 핵심적 기여"
19~20일, '제 58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 도쿄서 개최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일본 경제계와도 회동이 예정돼 있어 공급망·인공지능(AI)·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부문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창출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겸 LS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한국 측 단장단은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 일본 정부 관계자, 정계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했다. 한국 단장단은 이날 오후 3시께 다카이치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비롯해 AI 데이터센터·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경제협회 대표단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며 "19일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 초청받아 방한하게 됐는데 양국 우호 관계 근저에는 경제인들이 핵심적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좋았을 때나 가끔 어려웠을 때에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온 경제인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만났다. 최근 다케다 회장이 한·일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호리이 이와오 외무부대신, 이노 도시로 경제산업부대신 등과 회동한다.

방일 일정에는 구자열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이재연 삼성물산 사장 등이 동행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19~20일 도쿄에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 (NEXT STEP)'을 주제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산업 경쟁 심화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 장기화와 보호무역 기조 확산 속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양국 기업 간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도 기대된다. LS그룹은 전력기기·전선 분야, 현대자동차는 미래 차·모빌리티 분야, 두산은 반도체 소부장 분야 등에서 일본 기업과 점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2026.05.18. 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아주경제

'일본통'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양국 미래산업 협력 가교 맡는다

에너지·공급망·AI 등 3가지 핵심 과제 제시
구 회장 "한일 협력 위한 실질적 성과 낼 것"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이 올해 처음 한일경제협회 회장 자격으로 한일경제인회의를 주도하며 양국 경제 협력 확대 앞장선다. 그간 일본 정·재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대표적인 '일본통' 기업인으로 평가받는 구 회장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공급망 불안 등 그 어느 때보다 양국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회장은 19일 일본 도쿄 오키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단장을 맡아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제16대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사실상 데뷔 무대다.

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생존·발전하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 인재들의 역량을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일본과 인연이 깊다. 1978년 LG상사(현 LX인터내셔널)에 입사한 구 회장은 1990년대 초 일본 법인장을 맡아 약 2년간 도쿄에서 근무했다. 당시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인맥을 쌓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연을 이어가고 있다.

구 회장은 한·일 관계가 외교·안보 갈등으로 경색됐던 시기에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지속하는 데 주력했다. 세토포럼 이사로 활동하며 한·일 재계회의와 비즈니스 서밋 등에 참여했고 2006년에는 일본 주재 외교관·특파원·기업 지사장 모임인 '동경회' 회장을 맡아 양국 오피니언 리더 간 협력 확대에도 힘썼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인 2021~2024년에는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기업 간 협력 채널을 강화했다. 2022년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기업인 무비자 입국 재개와 차세대 산업 협력 확대, 민관 합동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경제계 협력 복원에 앞장섰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일본 와세다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와세다대 측은 구 회장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한·일 경제 협력 증진과 양국 교류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제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양국 간 미래 산업 협력 확대를 전면에서 진두지휘한다. 그는 주요 핵심 과제로 △에너지·전력망 △핵심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로봇 협력을 제시했다.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슈퍼그리드·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차세대 인프라 협력이 중요하고 공동 광물 투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제조 강국인 한·일 양국이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에서 공동 실증과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구 회장은 "한일경제협회는 기회가 될 때마다 상호 이익이 되는 과제들을 더 넓고 깊게 논의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면서 "저 역시 일본 지사에서 상사맨으로 시작해 그간 LS그룹 회장, 발명진흥회장,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일 양국 교류를 위해 힘써 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장 "韓日, 생존위해 협력해야"...에너지·공급망·피지컬AI 동맹 강조

제 58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 도쿄서 19일 개최
구 회장, 지난 2월 취임 후 첫 회의...3가지 과제 제시
LS그룹·롯데·두산 등 한일 경제인 300여명 참석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양국이 생존과 발전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감당하기보다는 한일 양국이 기술과 제도, 인재들의 역량을 융합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19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일한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다. 한일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회장은 이날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 구축한 순망치한 관계"라며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절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핵심 광물 및 자원 공급망 △제조업을 위한 AI·로봇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전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전력·통신 인프라 안보 협력 체계를 재구축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함께 구축하고 있는 부산-후쿠오카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 'JAKO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통신뿐 아니라 차세대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도 슈퍼그리드,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상풍력 등 전력망 안정화와 양국 간 효율적인 전력 운용에 기여할 협력 프로젝트가 다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광물과 자원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구리, 니켈, 코발트, 그리고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은 전기차와 배터리, 전력 인프라 등 미래 산업 전반에 필수 자원"이라면서 "문제는 이 자원들이 특정 국가의 자원 무기화와 수출 통제로 글로벌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일 공동 핵심 광물 펀드를 조성해 제3국 자원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구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동맹이 가장 절실한 협력 모델"이라고 제안했다.

또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로봇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했다.

구 회장은 "한국은 스마트팩토리,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생산 운영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 역시 로봇 산업의 전통 강자로서, 센서, 정밀기계, 제어와 안전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공동 실증을 추진하고, 공동 안전 기준과 테스트 프로토콜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작지만 핵심 기술을 가진 양국의 IT 벤처 기업들 간 협력도 더욱 활발해지면 한일 협력은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측 단장단은 회의 하루 전인 18일부터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예방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다케다 료타 회장과 다카이치 총리, 일본 외무·경제산업성 관계자 등을 만나 한일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했다.

정상회담 하루 전 일본 총리가 한국 경제인들을 직접 만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에서는 정상회담, 일본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민간 경제인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한일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구 회장은 "대한민국 경북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펼쳐지고 있고, 저희 양국 경제인들 역시 도쿄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상호 이익이 되는 과제들을 더 넓고 깊게 논의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 역시 일본 지사에서 상사맨으로 시작해 그간 LS그룹 회장, 발명진흥회장,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일 양국 교류를 위해 힘써 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주요 기업 총수와 경제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 스미토모화학, 노무라홀딩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했다.

회의 둘째 날인 20일에는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를 주제로 본회의 세션 논의가 이어지고, 양국 경제인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폐막할 예정이다.

2026.05.19. 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아주경제

LS·롯데·두산 총출동...한일 재계, AI·공급망·소부장 협력 속도

LS그룹, 전선·전력기기 분야서 협력...두산, 반도체 소부장 분야 시너지
"한일 전통적인 제조 강국...피지컬 AI 분야서 협력해야"



한일경제인회의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LS·롯데·두산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인공지능(AI)·전력망·반도체 소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 확대에 나선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양국 기업 간 '산업 연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은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스미토모상사, 스미토모화학, 도요타자동차, 노무라홀딩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기업 간 협력 논의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AI·에너지·첨단 제조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전환 시대에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와 반도체 공급망에서 협력이 절실해졌다.

LS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S전선이 과거 히타치전선과 기술 협력 관계를 맺었고, LS MnM 역시 일본 한일공동제련(JKJS)에서 투자를 받는 등 협력 경험이 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망 고도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초고압 케이블(HVDC)과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두산그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접점을 확대한다. 두산은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기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강점을 지닌 소부장 기술과 두산의 생산 역량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유통·식품을 넘어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재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꼽힌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일본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항암 신약에 대한 위탁개발·생산 수주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양국 기업 간 AI 협력이 가장 기대된다. 대표적인 제조 강국이라 피지컬 AI 분야에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와 AI 응용 기술이 있고, 일본은 세계 최고 소부장 로봇틱스 강국"이라며 "현재 양국 제조업이 정체된 국면에서 AI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AI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19. 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이제 한일 경제공동체 구체화할 때"… 공급망·통상 협력 확대 공감대

제 58회 한일경제인회의 행사 2일차…본회의 세션 열려

'세션1,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의제로 4가지 주제 발표 진행

"韓 CPTPP 가입, 한일 FTA 체결과 동일 효력…공동 원칙 구축해야"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일 경제공동체'를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국의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에너지·노동·기술 등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에 의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前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는 20일 오전 일본 도쿄 더 오쿠라 도쿄에서 '어떻게 한일경제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지정학적 위기, 초고령화 사회, 에너지 및 기술 패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곧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특히 제조업 전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명목 GDP(19조 5000억 달러)에 맞서 한국(2조 달러 미만)과 일본(5조 달러 미만)이 각개전투를 벌여서는 승산이 없다"면서 "양국이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려면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 논의는 수년전부터 있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이형희 SK그룹 부회장은 "SK 최태원 회장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이러한 주제를 수차례 던져왔고, 최근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내에서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비자문제나 신 경제조약 체결, 청년 스타트업 교류 등 구체적인 다음 진도로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부야 카즈히사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는 "직접적인 경제공동체 논의는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다루기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또 일본 내부 사정과도 맞물려 있는데,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사회 전반이 외부 경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내수에만 집중했을 뿐더러 과거 한국과의 역사 갈등에 대한 기억 때문에 외교적 이슈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부야 교수는 "CPTPP에 이미 참여 중인 일본과 가입을 원하는 한국이 다자간 파트너십 체제 안에서 협의를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도 "일본과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한일 FTA 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에너지·공급망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어느 한쪽에 원유·석유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량을 서로 융통해주는 스와프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일 양국에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한일 경제공동체는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생존을 위한 '에너지·공급망 안보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동 구매 및 스와프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데이터·전력 인프라 공동 구축, 첨단 기술 공동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형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6.05.20. 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한국 CPTPP 가입 등 빠르게 실행돼야"

제 58회 한일경제인회의 20일 폐막
구체적 협력 방향 담은 '공동성명' 채택
日회장 "韓 CPTPP 가입 신청하면 적극 지원"



"한·일 경제공동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스타트업 교류 등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20일 오후 일본 도쿄 더오쿠라도쿄 호텔에서 제 58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 인사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넘어 모든 영역에서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통찰을 얻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양국 경제인들이 심의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 유지·강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협력 심화 △미래로 이어지는 신뢰의 유대 등이다.

특히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회식 이후 진행된 양국 단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안 된 상태고,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자간 협정도 중요하지만 한·일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측 고지 아키요시 회장도 "한국이 공식적으로 신청하면 일본 정치·경제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등 첨단 기술 관련 구체적인 협력에 대해서 구 회장은 "AI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하드웨어는 중국이 지배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AI 관련 기술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고지 회장도 "한국과 일본이 단독으로 AI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경제계 공통 인식"이라면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단장의 폐회 인사를 끝으로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19~20일 이틀간 개최됐고 한국 측은 구자열 단장 등 137명, 일본 측은 고지 아키요시 단장 등 113명이 참가했다. 제59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6.05.20. 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아주경제

"한일 양자 협력 넘어 다자간 논의로"… 韓 CPTTP 가입 논의 '급부상'

한일 경제공동체, 현실적 방안 제시…한일경제계, 한국 가입 촉구
"韓정부, CPTPP 가입 긍정 검토"…한일 정상회담선 언급 안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의 TPP 협상을 총괄 지휘해 온 시부야 가즈히사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前정책조정총괄관)은 지난 20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CPTPP는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규범의 밀도가 높아지는 '진화하는 협정'"이라며 "(한국이 CPTPP에 참여하게 되면) 다자간 파트너십 체제를 통해 한일이 더 깊은 경제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경제계는 한국의 CPTPP 가입이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구현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데 공감한다. 시부야 교수는 "양자 간의 직접적인 경제공동체 논의는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다루기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CPTPP에 이미 참여 중인 일본과 가입을 원하는 한국이 다자간 파트너십 체제 안에서 협의를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250여명의 한일경제인들이 모인 '제 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가 하루빨리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들은 "CPTPP는 세계적 규모의 다국 간 경제 연계의 중요한 틀"이라면서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과 그 실현을 향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자열 한국경제협회장은 양국 단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안 된 상태고, 한국 정부도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 측 고지 아키요시 회장도 "한국이 공식적으로 신청하면 일본 정치·경제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 가입을 통해 양국의 '벤처·스타트업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한일 양국간 벤처·스타트업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례로 마키나락스, 패블스퀘어 등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 대형 건설사·자동차 제조회사와 협력하고 있고, 삼성,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들은 유망한 일본 기술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적이다.

플랫폼이 강점인 한국 스타트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강한 일본 기술 벤처기업이 CPTPP의 투자·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통해 결합한다면, 글로벌 거대 자본에 맞설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 1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선 관련 논의가 없었다. 공급망·AI·에너지 등 경제안보 중심으로 다뤄졌다. CPTPP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후쿠시마산 식품 규제 등 민감한 이슈가 얹혀 있는 데다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 정부도 산업계와 농축수산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얹혀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비교적 공감대 형성이 쉬운 의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2026.05.21. 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구자열 "에너지·핵심광물·AI로봇…한일 공동대응 절실"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한일 공급망 동맹 필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그룹 이사회 의장)이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비롯해 핵심 광물 공급망과 AI(인공지능)·로봇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은 19일 일본 도쿄 더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에서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3대 협력 과제로 ▲에너지·전력 인프라 ▲핵심 광물 및 자원 공급망 ▲AI·로봇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구 회장은 이날 에너지·전력 인프라와 관련해 부산~후쿠오카 간 260km 해저 광케이블을 깔아 2027년까지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JAKO(Japan-Korea)'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양국이 통신을 넘어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반 슈퍼그리드와 해상풍력 등 차세대 전력망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구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자원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고 있고, 이를 무기화해 수출을 통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한일 공동 핵심 광물 펀드 구성과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통한 공급망 동맹 구축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양국의 협력 모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양국의 AI·로봇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 스마트팩토리·공정 자동화에서, 일본은 센서·정밀 기계 제어·안전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조 현장 중심의 피지컬 AI 공동 실증과 안전 기준 마련, 테스트 프로토콜을 축적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분명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69년 제1회 이후 단 한 차례도 중단 없이 이어져 온 한일경제인회의는 2년 뒤인 2028년에는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등 13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측에서도 도쿠라 마사카즈 전 게이단렌 회장,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 20일에는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등 주요 세션을 거쳐 양국 경제인 공동 성명을 채택한 뒤 폐막할 예정입니다.

2025.05.19. 조슬기 기자 skcho@sbs.co.kr

MTN 뉴스

한일 재계 "한국 CPTPP 가입, 강력지지"

58회 한일경제인회의 후 공동성명 채택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날(19일)부터 양일간 일본 도쿄 '더 오쿠라 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날 폐막식 공동성명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채택하며 한국의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양국 재계는 성명에서 "CPTPP는 세계적 규모의 다국 간 경제연계의 중요한 틀"이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은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과 그 실현을 향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의 유지·강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한일경제공동체 구상 등의 논의를 토대로 한일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과 발언권을 높여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려면 한국의 CPTPP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PTPP를 세계적 규모의 다국간 경제연계의 중요한 틀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또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양식 및 사회구조 그 자체를 크게 바꾸고 있다"며 "미국·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이러한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양국 간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제3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디지털, Age-Tech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과제 해결의 양립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과제 해결의 양립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양국) 대학 간 학위·학점 상호인증 등 상대국에서 배우기 쉬운 환경으로 정비함과 함께, 자유롭고 원활한 왕래를 촉진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의 조기실현을 제창하며, 지속적인 한일연계의 기반을 가일층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첫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과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해마다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한일·일한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이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을 필두로 한국 측 단장단은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양국 정상들의 우호협력에 대해 양국 경제인도 큰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내년 59차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2026.05.20. 민지형 기자 oasis@mtn.co.kr

구자열 "한일관계 발전 확신…AI·로봇 분야 협력해야"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은 "올해 한일 양국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은 오늘(19일) 일본 더오쿠라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테마로 열렸으며, 한일·일한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입니다.

구자열 회장을 필두로 하는 한국 측 단장단은 어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양국 정상들의 우호협력에 대해 양국 경제인도 큰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향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온 경제인들에게 경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바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이 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에 더 의미가 새롭다"며 "많은 분들이 한일 협력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니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의 공통 도전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및 자원공급망 협력, AI·로봇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며,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며, "경제인들이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Next Step을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최영배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 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석 남해종합건설 부회장, 서형원 경동시장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신형구 포스코재팬 사장, 장희재 한화재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등 13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을 포함해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2026.05.19.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구자열 "한일, 제조 현장서 피지컬AI 공동 실증 나서자"

한일 경제인들, 도쿄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한일경제협회장 맡은 LS 구자열, 한일 산업 협력 제안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CEO) 등 300여명이 19일 일본 도쿄구라도쿄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테마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일경제협회 측이 밝혔다.

두 나라 경제인은 지난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양국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장(LS 이사회 의장)은 올해 2월,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은 올해 6월 각각 취임했다.



한국 측 단장인 구자열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한일 협력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니 막중한 책임이 느껴진다”며 “올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공동 도전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및 자원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로봇 분야 협력 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공동 실증을 추진하고 공동 안전 기준과 테스트 프로토콜을 축적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분명 차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회장은 “지금은 변화의 시대”라며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인들이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넥스트 스텝을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회장 외에 최영배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 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김형석 남해종합건설

부회장, 서형원 경동시장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신형구 포스코재팬 사장, 장희재 한화재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회장을 단장으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상담역, 나루세 마사하루 더오쿠라도쿄 회장, 가타오카 토모히코 도레이 인터내셔널 상담역, 구로이시 쿠니노리 마루베니 고문,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 상사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미토모화학 회장, 다케무라 아키토시 도요타자동차 총괄부장, 나가이 코지 노무라홀딩스 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18일 오후 내각총리대신, 일한의원연맹 회장, 외무대신, 경산대신 등 정부 부처를 예방했다. 각 면담 때는 한일 관계에서 민간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2026.05.19. 김정남 기자 jungkim@edaily.co.kr



[Leader & Now] 구자열·신동빈·박정원 총출동…한일 재계, 도쿄서 '미래 협력' 논의

구자열 회장, 일본 총리 예방 예정…경제 협력 확대 지원 요청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 더오쿠라도쿄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데다 개회식이 열리는 19일 한국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신동빈, 박정원, 구자은, 구자균, 이형희, 이재언, 정상혁, 최윤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무역협회 등에서도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모빌리티·디지털·금융·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을 비롯해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 상사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첨단산업, 금융,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함께 양국 경제계 간 교류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자열 회장을 포함한 한국 측 단장단은 회의 하루 전인 오는 18일 일본 총리를 예방해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 의미를 설명하고 양국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6.05.14.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재계 총수 300명 도쿄 집결…AI·에너지 협력 논의

구자열·고지 아키요시 신임 회장 체제 첫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한국과 일본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일본 도쿄에 모여 인공지능(AI),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회담과 맞물려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중심의 한일 협력 확대 필요성이 집중 부각됐다.

19일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날 일본 도쿄의 더 오쿠라 도쿄에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양국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단체장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개최 이후 정치·외교 갈등과 경제위기, 자연재해 속에서도 단 한 차례도 중단 없이 이어져 온 양국 최대 민간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국 측 단장은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맡았다. 일본 측은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이끌었다. 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의 협력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올해 한일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공동 과제로 에너지·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및 자원 공급망 협력, AI·로봇 분야 협력 등을 제시하면서 "공통 도전과제에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회장도 "지금은 변화의 시대"라며 "한일 협력의 가치와 의미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나아갈 방향성과 다음 단계(Next Step)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측 단장단은 본회의에 앞서 18일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본 총리와 일한의원연맹 회장, 외무상, 경제산업상 등을 만나 양국 정상 간 우호 분위기를 바탕으로 경제계도 실질적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일본 측에서도 5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중단 없이 회의를 이어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민간 경제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 시기에 열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날 한국 안동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쿄에서는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양국 공동 선언과 경제협력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 둘째 날인 20일에는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추가 논의가 이어진다. 양국 경제인들은 회의 종료 후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구자열 회장 “한일 협력, 선택 아닌 생존”... 에너지·AI·공급망 공조 강조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취임 후 첫 한일경제인회의서 민간 협력 확대 메시지
한일 정상회담 맞물려 경제계도 공동 대응 강조... “공통 과제 함께 풀어야”
에너지·전력망·핵심광물·AI·로봇 협력 제안



한국과 일본 경제계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취임한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겸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첫 한일경제인회의 무대에서 양국 경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미래 산업 중심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구 회장은 19일 일본 도쿄 더오쿠라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에서 “한국 안동에서는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의 협력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올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직면한 공통 도전 과제에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전력 인프라 △핵심 광물 및 자원 공급망 △AI·로봇 분야를 핵심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구 회장이 지난 2월 한일경제협회 회장에 취임한 뒤 처음 참석한 행사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일한경제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경제인회의를 이끌었다.

특히 구 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경제인 대표단은 회의에 앞서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일 정상 간 우호 분위기에 발맞춰 경제 협력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표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면담하며 민간 경제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경제인 대표단을 만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69년 시작된 한일경제인회의는 정치·외교 갈등과 글로벌 금융위기, 자연재해 등에도 단 한 차례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 올해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경제인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회의 둘째 날인 20일에는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 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 뒤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과거 교류 중심을 넘어 에너지·AI·광물 확보 등 실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6.05.19. 권태성 기자 tskwon@etoday.co.kr



이진석 KATA회장, 한·일 경제인 회의서 주제발표

“지속가능한 관광교류 확대 및 성장 불균형 해소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필요” 강조
청소년 교류 및 장거리 관광객 공동 유치 위한 제도적 협력 필요성도 제기



[잡포스트] 서진수 기자=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은 지난 19일과 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8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가해 ‘한일 관광교류 현황과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의 경제계 인사가 참석해 양국의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협력 회의체로, 매년 한일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58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경제인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진석 회장은 5월20일 개최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테마로 한 세션에서 관광업계를 대표해 '한일관광교류 현황과 미래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양국 경제 협력 체계내에서 인적 교류와 관광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현재 한일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호 방문객 수와 지역 편중 등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상호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방공항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한일 공항 및 항공노선의 편중이 심각하다며 일본은 지방공항과 노선이 활성화돼 여행 목적지로서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데 비해 한국은 특정 소수공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중심의 관광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지방공항 활성화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일 우호교류 증대를 위해서는 미래세대 교류가 필수적이므로 청소년 교육여행을 활성화하고 국가가 나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구미주 등 장거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일, 한중일을 단일관광권역으로 만들어 역외관광객이 한 번에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제도적 협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한일 양국의 권위있는 경제협력회의에 관광업계 대표가 참여해 관광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한일 양국 경제계가 미래를 향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관광 분야에서도 쌍방향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향후 정부, 유관기관과의 정책적 공조로 이어져 실질적인 관광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5.22.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한일 정상회담 날, 도쿄선 경제인 300명 모였다…"에너지·AI·공급망 협력"

한국과 일본 경제인 300여 명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19일 일본 더오쿠라도쿄에서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이 취임한 뒤 처음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다. 한국 측에서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각각 단장을 맡았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 이후 정치 갈등과 경제위기, 자연재해 속에서도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열려왔다.

올해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 날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9일 한국 안동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됐고, 일본 도쿄에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 단장단은 회의 전날인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예방했다. 구자열 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단장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정상 간 우호 협력 분위기에 맞춰 경제계도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경제인회의가 58년 동안 이어져 온 점을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소통을 이어온 경제인들의 역할에 경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바로 오늘 대한민국 안동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이곳 도쿄에서는 경제인들의 협력 논의가 진행돼 더 의미가 새롭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과 자원 공급망 협력, AI·로봇 분야 협력을 제시했다.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회장은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며, 한일이 협력하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둘째 날인 20일에는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양국 경제인은 회의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이재언 삼성물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미토모상사와 스미토모화학, 도요타자동차, 노무라홀딩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외교와 민간 경제협력을 연결하고,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첨단산업 경쟁 속에서 협력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2026.05.19. 강동원 기자 tuna@chosun.com

도쿄에선 韓·日 경제인 집결… "에너지·AI 협력 절실"

정상회담 날, 총수 300명 한자리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시대적 공통 과제 공동 대응을"
교육·경제 협력 시스템도 제안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LS 이사회 의장)은 19일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전력 인프라 협력과 핵심 광물 및 자원 공급망 협력, 인공 지능(AI)·로봇 분야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 '더 오페라 도쿄'에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에너지·자원·AI 로봇 협력 절실"

그는 "양국은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은 물론 급속한 인구 고령화, 기후 위기, AI 패권 경쟁 등 시대적 공통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며 "이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전력 및 통신 인프라 안보협력 체계를 재구축할 시기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한일 양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함께 부산과 후쿠오카 사이 260km 규모의 해저 광케이블을 깔아 2027년까지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JAKO(Japan-Kore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통신 뿐 아니라 차세대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일 슈퍼그리드 구축,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상풍력 등 전력망 안정화와 양국 간 효율적인 전력 운용에 기여할 협력 프로젝트가 다수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 공동 핵심 광물 펀드 등을 조성해 제3국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제조업 기반을 안정화하는 등 공급망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을 위한 AI·로봇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국도 스마트팩토리,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생산 운영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 역시 센서, 정밀기계, 제어와 안전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구 회장은 "한일 양국이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공동 실증을 추진하고 공동 안전 기준과 테스트 프로토콜을 축적한다면, 특히 양국의 IT 벤처 기업들 간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진다면 한일 협력은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경제 협력 연결 시스템 필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의 넥스트 스텝을 위해 공존을 위한 경제 안보 협력과 성장을 위한 AI 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세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해나 친선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과 경제 협력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측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도 "변화의 시대 속에서 한일 협력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인들이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일한 양국 경제협회의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로 영국 주요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시작된 이후 정치·외교 갈등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적인 민간 경제 협의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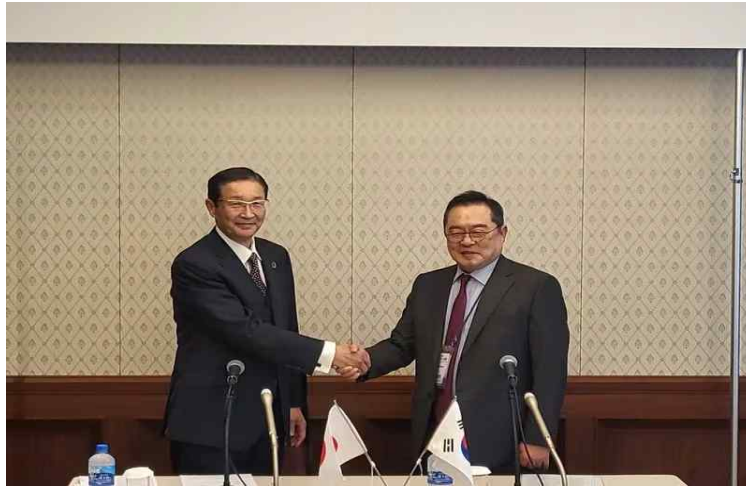
한국 측에서 구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나가이 코지 노무라홀딩스 회장 등이 자리했다.

구 회장을 필두로 한국 측 단장단은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양국 정상들의 우호협력에 대해 양국 경제인도 큰 경제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경제인들의 예방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카이치 총리도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더 큰 결실을 향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온 경제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2026.05.19. 서혜진 기자 sjmary@fnnews.com

한일 재계 "韓 CPTPP 가입 신청 기대..日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20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 '더 오쿠라 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CPTPP는 세계적 규모의 다국간 경제 연계의 중요한 틀"이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은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과 그 실현을 향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 대표단 단장인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협정인 CPTPP에 가입 신청을 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측 대표단 단장인 고지 아키요시이 일본경제협회 회장은 "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RCEP) 뿐 아니라 CPTPP에 가입하면 다자주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저희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과 중국이 AI와 디지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제3의 축을 형성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 회장은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하드웨어는 중국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며 "양국이 AI 관련 기술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지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단독으로 AI 관련 R&D나 시스템 구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에는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도 담겼다. 양측은 "한일의 차세대를

젊어질 젊은이들이 이른 시기부터 서로를 알고 배우며 교류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 간 학위·학점 상호 인증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시스템화의 조기 실현을 요구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해 1969년에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69년 첫 회의 이래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등에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다.

올해 회의는 한일 양국 경제협회 회장이 모두 교체된 뒤 처음 열린 행사로 '한일이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했다. 한국 측에서는 137명, 일본에서는 113명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6.05.20. 서혜진 기자 sjmary@fnnews.com



이진석 KATA 회장,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제발표 ... “지방공항 활성화 필요 제언”

‘한중일 단일관광권역’ 도입 및 청소년 교육 여행 국가 지원 촉구

동아시아 판 짜는 파격 제언, “유럽처럼 ‘한·중·일 단일 관광권역’ 제도화해야”

양국 신뢰 지탱할 미래 세대 교류 복원 촉구, “청소년 교육 여행에 국가가 나서라”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가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특정 공항 쏠림 현상과 지역별 관광 불균형이 양국 친선 및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거점별 지방공항 인프라와 지자체별 노선 다변화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관광 거점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수도권 중심의 진입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이진석 회장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관광업계 대표 연사로 참석해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짚어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공식 제안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거시적 경제 협력체계를 조율하고 산업별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 권위 있는 경제협력 회의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내건 올해 회의에는 양국 주요 대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경제인 250여 명이 집결해 분과별 전략을 논의했다.

이진석 회장은 대회 이튿날인 20일 진행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 테마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인적 교류의 양적 팽창 이면에 가려진 ‘상호 방문객 편차’와 ‘지방 다변화 실패’를 집중 조명했다.

이 회장은 “일본은 지방공항의 국제선 기능과 광역 노선망이 촘촘히 전개돼 있어 글로벌 여행객들에게 높은 접근성과 목적지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게이트웨이에 국제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외래 객의 동선이 서울과 그 주변부로 제한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국적 외항사 유치, 지방공항 유관 인프라 확충이 동반되어야만 고착화된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양국의 장기적 신뢰 관계를 지탱할 핵심 축으로 ‘미래 세대’를 꼽은 이 회장은 청소년 교육여행의 복원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단순한 자율 경비 보조를 넘어, 양국 정부가 정기적인 수학여행 교류 노선을 보장하고 비자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거시적 안전장치와 혜택을 제공해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청소년 교류의 맥이 끊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겨냥한 파격적인 연대 방안도 도출됐다. 이 회장은 유럽연합(EU)의 쉥겐조약이나 아세안(ASEAN)의 공동 비자 흐름처럼 한일 또는 한중일을 아우르는 ‘단일 관광권역(Single Tourism Zone)’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해외 여행객들이 동아시아를 방문할 때, 개별 국가의 출입국 장벽이나 행정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단일한 권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자간 항공 자유화 및 연계 교통망 세션을 정비하자는 통상적 접근이다.

이 회장은 “양국 경제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본회의에 관광업계의 목소리가 정식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인적 교류가 단순한 소비 산업을 넘어 국가 간 거시 경제를 견인하는 전략 자산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경제인회의에서 도출된 의제들이 민간 차원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양국 정부 및 유관 부처의 외교적·정책적 공조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국익과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6.05.21. 이상인 편집위원 lagolftime@naver.com

한일 경제인, 도쿄서 집결… 신동빈·박정원·구자은 등 재계 총출동



국내 최대 한일 경제계 교류 단체인 한일경제협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제58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의 주요 재계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19일 재계와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국의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도 현지를 찾아 첫날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오른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이재연 삼성물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권대열 카카오 ESG총괄리더 등이 동행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고지 아키요시 신임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그룹 회장)을 필두로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명예회장, 효도 마사유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다케무라 아키토시 도요타자동차 총괄부장 등 경제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한다.

올해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구자열 회장은 행사 마지막 날 일본 측과 함께 양국 경제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韓日 경제인 "한국의 CPTPP가입 적극 추진"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미래세대 위한 교류확대 필요



“한국 재계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20일 일본 도쿄 ‘더 오쿠라 도쿄’에서 막을 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양측 경제인들은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해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경제인은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진전과 그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도 담겼다. 양측은 “한일의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이른 시기부터 서로를 알고 배우며 교류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대학 간 학위·학점 상호 인증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시스템화의 조기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위험 확대 속에서 “한일이 자유롭고 열린 경제질서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자열 한일경제협회장은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협력 강화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일치함을 재확인했다”며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 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논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해야한다는 통찰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 기타 한국어 뉴스 >

(연합뉴스)

[도쿄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헤럴드경제)

[韓 경제인들 18일 다카이치 총리 만난다…신동빈·박정원·구자은 등 도쿄行](#)

(경기일보)

[“나라 이어 안동”…이재명·다카이치, 정상 간 ‘고향 서툰외교’](#)

(뉴스원)

[개회사하는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다카이치 총리 예방하는 구자열 회장](#)

(더팩트)

[\[단독\] 韓日 기업인 18일 도쿄 모인다…총수 대신 전문경영인 중심](#)

(데일리안)

[31조 성과급 내건 이재용, AI 수익모델 바꾸는 최태원 \[재계·in\]](#)

(CBC NEWS)

[\[총수家\]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 한일 경제협력부터 AI·에너지까지 ‘글로벌 행보’ 확대](#)

(아주경제)

[한일 경협 '넥스트 스텝' 도모...양국 기업인 도쿄서 공급망·AI 협력 논의](#)

(MTN뉴스)

[\[단독\]도쿄 대신 안동 간 한경협 회장](#)

(중도일보)

[세종시, 日 국제 교류 박차 "기업 유치도 가시화" 전망](#)

(파이낸셜뉴스)

[한일 경제인 300명 도쿄에 모였다..."양국 관계 의미있는 발전"](#)

(폴리뉴스)

[한·일 정상, 에너지·공급망 '공동전선' 구축 ... 국내 산업계 환영](#)

(한국경제)

[\[포토\]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구자열·신동빈·박정원 등 참석](#)

第58回日韓経済人会議・韓国側代表団による 高市総理大臣表敬



5月18日、午後3時15分から約15分間、高市早苗内閣総理大臣は、第58回日韓経済人会議に出席するため訪日した具滋烈（ク・ジャヨル）韓日経済協会会長を始めとする韓国側代表団による表敬（小路明善日韓経済協会会長同席）を受けました。

高市総理大臣から、韓国側代表団の訪日を歓迎するとともに、良好な日韓関係の基調を支える経済界の交流がさらに活発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旨述べました。

また、高市総理大臣から、19日からの日韓経済人会議での実り多い議論を期待したい旨述べました。

（参考）日韓経済人会議

日韓両国を代表する企業・団体のトップが一堂に会して両国経済の協力関係や課題について意見交換を行う場として、1969年（昭和44年）に「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会議」の名称で発足。毎年1回、日韓交互に開催。本年は、第58回目の会議が5月19日から20日まで東京で開催される。

2025.05.18. 외무성

韓日経済協会一行による堀井外務副大臣表敬



5月19日、午前9時20分から約25分間、堀井巖外務副大臣は、第58回日韓経済人会議に出席するため訪日した具滋烈（ク・ジャヨル）韓日経済協会会長を始めとする韓国側代表団による表敬（小路明善日韓経済協会会長同席）を受けました。

冒頭、堀井副大臣から、韓国側代表団の訪日を歓迎するとともに、現下の厳しい国際経済情勢を踏まえ、日韓が共に成長し続けていくためには、戦略的かつ互いに利益をもたらす形の協力を進めることが重要である旨述べました。その後、代表団のメンバーと、日韓間のビジネスの展望等につき、意見交換を行いました。

また、堀井副大臣から、日韓経済人会議での実り多い議論を期待したい旨述べました。

（参考）日韓経済人会議

日韓両国を代表する企業・団体のトップが一堂に会して両国経済の協力関係や課題について意見交換を行う場として、1969年（昭和44年）に「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会議」の名称で発足。毎年1回、日韓交互に開催。本年は、第58回目の会議が5月19日から20日まで東京で開催される。

2025.05.19. 외무성

高市首相、日韓経済交流に期待 済人会議で韓国側財界人らと面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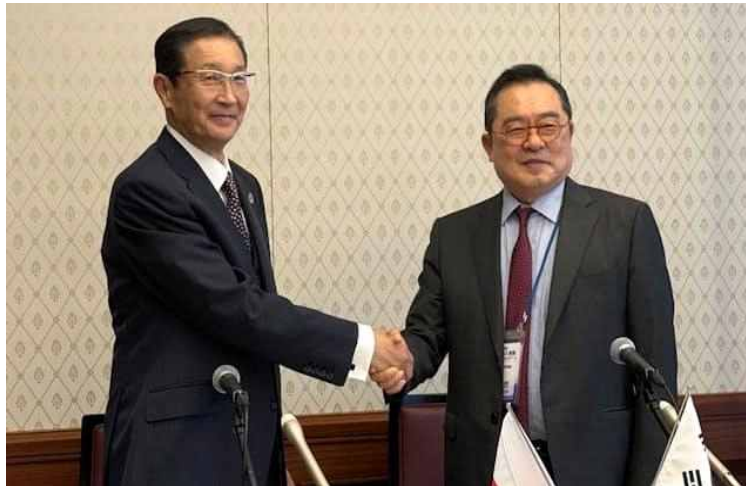


高市早苗首相は18日、日韓両国の財界人らが経済協力について意見交換する「日韓経済人会議」の韓国側代表団と官邸で面会した。「良好な日韓関係の基調を支える経済界の交流がさらに活発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

19、20日に東京都内で開かれる日韓経済人会議に関し「実り多い議論を期待したい」とも語った。会議は1969年に発足。日韓交互で毎年開催している。

2026.05.18. 산케이신문

韓国にTPP参加要請 日韓経済人会議、出入国の簡素化も提起



日本と韓国の企業トップらが集まる日韓経済人会議は20日、韓国の包括的・先進的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CPTPP）の参加を求める共同声明をまとめた。地政学リスクの高まりを受け「自由で開かれた経済秩序」の維持・強化も盛り込んだ。

大学間の学位・単位の相互認証に関する環境整備や、出入国手続きの簡素化の早期実現なども提起した。

韓日経済協会の具滋烈（ク・ジャヨル）会長は終了後の記者会見で「声明には私ども経済人の期待を盛り込んだ」と述べた。日韓経済協会の小路明善会長は「韓国が加盟申請を明確に打ち出したならば、強力に支援する」と語った。

小路氏は中東情勢の悪化に伴うエネルギー分野の協力について「見通しや対策を共有し、具体的な行動につなげる時期だ」と話した。具氏は「重要鉱物などに共同投資して確保する重要性については議論した」とした。

韓国は2021年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CPTPPへの加盟検討を表明した。国内の反発などもあり正式な申請には至っていない。

会議は19～20日に都内で開き250人が参加した。

日韓経済人会議日本側トップ “中東情勢不安定は両国のリスク”



日本と韓国の企業経営者らが集まる「日韓経済人会議」が東京都内で開かれ、日本側のトップは、エネルギーの輸入依存度が高い日韓にとって中東情勢の不安定化が経済面での重大リスクだと指摘し、情報収集や対策の面で連携を進め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今回で58回目となる「日韓経済人会議」は20日まで東京都内のホテルで開催され、両国の企業経営者などおよそ250人が出席して、AIをはじめとする先端技術の分野で両国の企業が連携を強化していくことなどを盛り込んだ共同声明を採択しました。

終了後の記者会見で「日韓経済協会」の小路明善会長は中東情勢の悪化について「原油やLNG＝液化天然ガスの価格の高止まりが続き、日韓両国では物価が上昇して企業のコストも非常に高くなっている。これらが長期にわたると両国の景気の下押し要因になる」と述べました。

そのうえで「エネルギーの輸入依存度の高い日韓にとって、中東情勢の不安定化は経済と産業に直結する重大リスクだと認識している」と述べ、情報収集や対策の面で日韓の経済界の連携を進め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一方、韓国側の団体のク・ジャヨル会長は「日本と韓国は天然資源が乏しく、原油や水素などの資源を輸入しないといけない。会議では日韓がレアアースなどの重要物資についても共同で投資し、確保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いう話があった」と述べました。

日韓経済人会議が開催、CPTPPやAIなど具体的に議論



第58回日韓経済人会議（主催：日韓経済協会、韓日経済協会など）が5月19、20日の2日間、「日韓がともに踏み出す、次の一步」をテーマに、東京都内で開催された。日韓経済人会議は1969年の第1回以降、毎年、一度も中断することなく、日韓で交互に開催されてきた。今回は、日本側から小路明善・日韓経済協会会長（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会長）をはじめ、113人が参加し、韓国側から具滋烈（ク・ジャヨル）韓日経済協会会長（LSグループ取締役会議長）ら137人が参加した。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および先進的な協定（CPTPP）や人工知能（AI）などについて具体的な議論が行われた。

2日間にわたって行われた全体会議では、両国の経済界や大学関係者などから、テーマに沿って具体的な取り組み事例や提言が発表された。第1セッションでは、「未来を拓く経済連携」を主題として、奥田聡・亜細亜大学教授や尹徳敏（ユン・ドクミン）・韓国外国語大学碩座教授（元駐日韓国大使）らが登壇した。第2セッションでは、「人がつなぐ未来、共創が育む持続可能な社会」を主題に、李康鎬（イ・ガンホ）・韓国科学技術院（KAIST）教授や関島亮一・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理事長（韓国三井物産社長）などが登壇した。

採択された共同声明では、（1）自由で開かれた経済秩序の維持・強化（CPTPPへの韓国加入の支持など）、（2）新産業分野における協力の深化〔AI、デジタル、エイジテック（注）などの新産業分野やスタートアップの育成など〕、（3）未来へとつながる信頼の絆（大学間の学位・単位相互認証、出入国手続きの簡素化など）の3点が盛り込まれた。

閉会あいさつにおいて、小路会長は、5月19日に行われた日韓首脳会談（2026年5月21日記事参照）を踏まえ、「政治と同じ歩調を取ることが重要で、日韓の協会同士でも具体的な方向性を明確にできたため、新たな出発点としてこの共同声明を取り扱っていく」と今後を見据えた。また、具会長も「地理的に近いということを超えて、より広い分野で協力していくことを共通の目標とし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と成果を強調した。

（注）高齢者や高齢社会に付随する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技術や商品・サービス

韓日經濟人會議

「核心鉱物確保とAI発展に韓日の協力が重要」



韓日経済協会と日韓経済協会が19日、東京で第58回韓日経済人会議を開き、経済協力強化案を話し合った。「韓日がともに踏み出す、次の一步」を主題に開かれた今回の会議には両国の企業関係者300人以上が参加した。

韓国側団長の具滋烈（ク・ジャヨル）韓日経済協会会長（LS理事会議長）は開会あいさつで「エネルギー・電力インフラと核心鉱物供給網、人工知能（AI）・ロボット分野の協力が重要だ」と強調した。日韓経済協会の小路明善会長も、日韓協力の価値を具体的行動で見せるべき時と話した。

両国経済人は急変する世界的供給網環境と保護貿易強化の流れの中で経済安全保障協力の必要性に共感した。特に核心鉱物確保と先端産業供給網安定化、AIなど未来産業分野で両国企業間協力を拡大すべきという意見が相次いだ。

2026.05.20. 중앙일보

韓日経済人会議が共同声明 韓国のCPTPP加盟へ議論促す



【東京聯合ニュース】韓国と日本の企業トップらが経済協力について意見交換する「韓日経済人会議」が19、20日に東京都内で開かれ、韓国の包括的・先進的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CPTPP）加盟に向けた議論を推進し、両国の経済協力強化を求める共同声明が採択された。

共同声明では「エネルギーや重要鉱物の安定的な供給体制の脆弱（ぜいじゃく）さが浮き彫りになり、経済安全保障の基盤が大きく揺らいでいる」とし、「不確実性が高まっている国際経済環境において、自由で開かれた経済秩序の維持・強化は最も重要な課題だ」と指摘した。

また「韓日関係は安定した外交関係と相互理解の進展により非常に良好な状態にある」と評価。

「韓日経済共同体構想などの議論を踏まえ、韓日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さらに深化させて国際社会での存在感と発言力を高め、経済秩序の維持・安定化においてより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く」との決意が盛り込まれた。

韓日経済協力の具体的な方向性としては、韓国のCPTPP加盟推進が挙げられた。

2018年に発効したCPTPPは日本などが主導している。韓国も加盟を目指しているが、今月19日に韓国で開かれた韓日首脳会談ではこの問題は議論されなかった。

会議の出席者はCPTPPについて、「世界規模の多国間経済連携の重要な枠組みだ」と強調。「韓日両国の経済人は韓国の加盟に向けた具体的な検討の進展と、その実現に向けた日本の支援を期待し、両国の取り組みを強力に支持する」とした。

韓日経済協会の具滋烈（ク・ジャヨル）会長は終了後の記者会見で「韓国政府が加盟を申請すれば日本政府も積極的に検討するだろう」と期待を示した。日韓経済協会の小路明善会長は、日本の政治・経済界が積極的に支援するとの考えを示し、韓国が加盟すれば多国間の協力の幅が広がると期待した。

2026.05.20. 연합뉴스

韓国のTPP加入支持 日韓経済人会議が声明



日本と韓国の企業トップらによる日韓経済人会議は20日、東京都内で会合を開き、「包括的および先進的な環太平洋連携協定（CPTPP）」への韓国加入を支持すると明記した共同声明を採択した。声明は米国と中国が先行する人工知能（AI）などの先端技術で日韓が連携し、「第三極の形成」を目指す必要性も訴えた。

TPPとEUが合同閣僚会合 WTO改革支持の声明調整

日本側代表の小路明善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会長は記者会見で「日韓が先端技術分野で強みを持ち寄り、連携していくべきだ」と語った。韓国側代表の具滋烈氏は「重要鉱物などに共同で投資し、確保していくことが大切だ」との認識を示した。

2026.05.20. 시사통신사

(일간공업신문)

[AI分野で連携 日韓経済人会議、共同声明で閉幕](#)

(매일경제)

[「韓日関係は純ハンマー韓」・・・韓日経済人300人、東京に集結して協力論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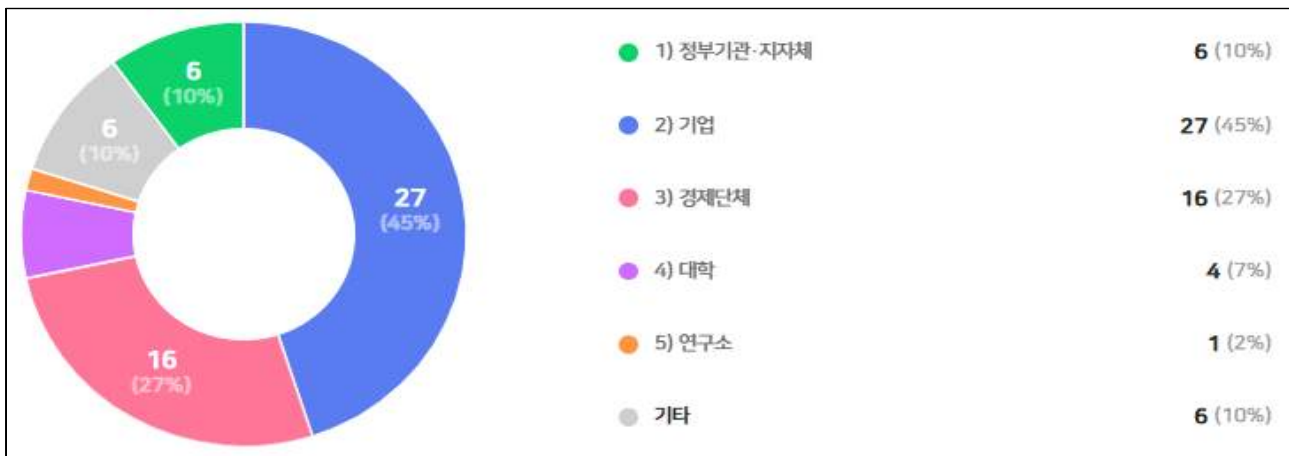
[韓日財界「韓国はCPTPP加盟を推進、日本は積極的に支援すべき」](#)

計 12건

첨부 6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1. 조사기간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기간 및 종료 후 2주간(5월19일~6월 4일)
2. 조사방법 : 현장 및 사후 앙케이트 조사(네이버폼)
3. 조사대상 : 5/19~20 양일 모두 참석한 한국 측 참가자(137명)
4. 응답자수 :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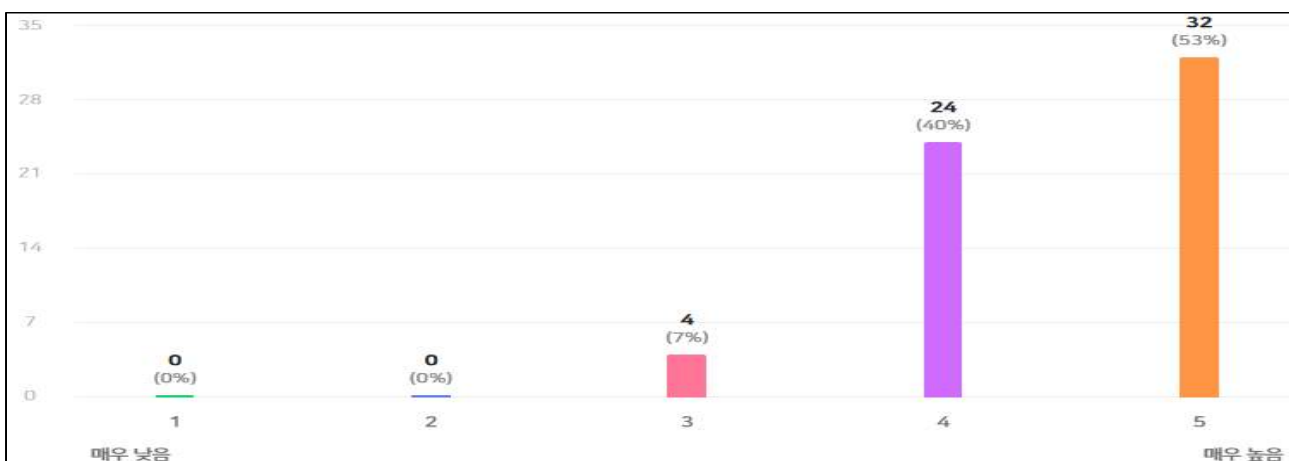
■ 회의 참가자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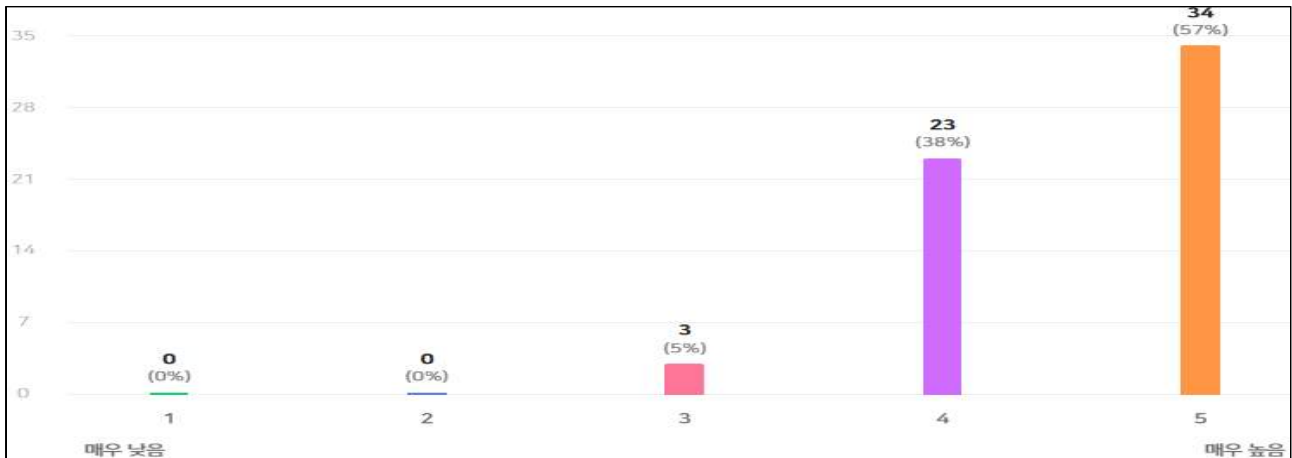
■ 각 발표에 대한 관심도

1) (기조연설)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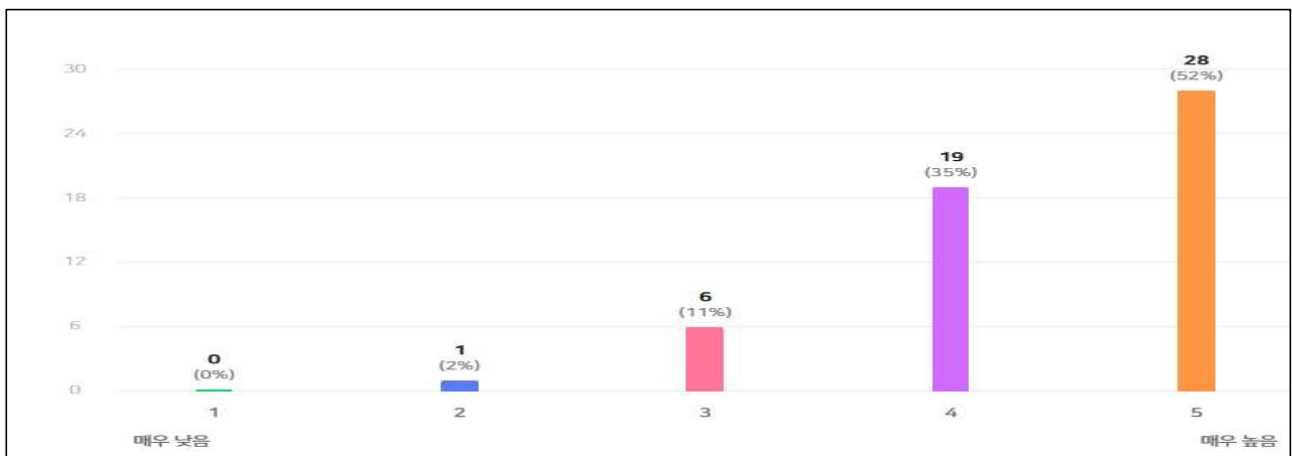
(일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 스미토모화학(주) 상담역·(일사)일한경제협회 상담역



2) (기조연설) 김창범(金昌範) (사)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3) <제1세션> 오쿠다 사토루(奥田 聡) 아시아대학 교수
「국제환경 변화를 전망한 향후 한일 경제 협력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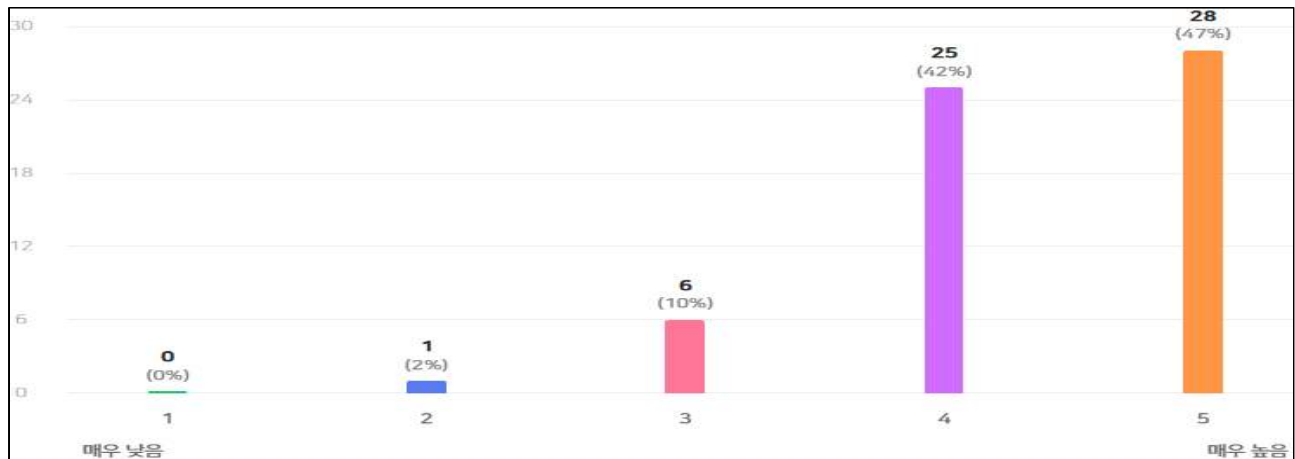


4) <제1세션> 윤덕민(尹德敏)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前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어떻게 한일경제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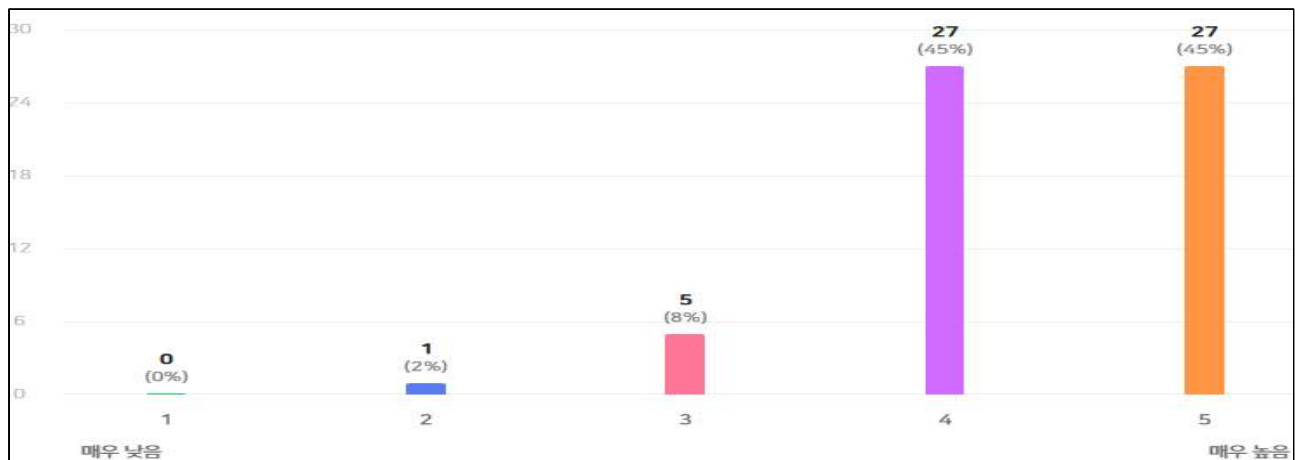
5) <제1세션> 시부야 카즈히사(澁谷 和久)

간세이가쿠인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前内각관방 TPP 등 정부대책본부 정책조정총괄관
「CPTPP~ 「살아있는 협정」(Living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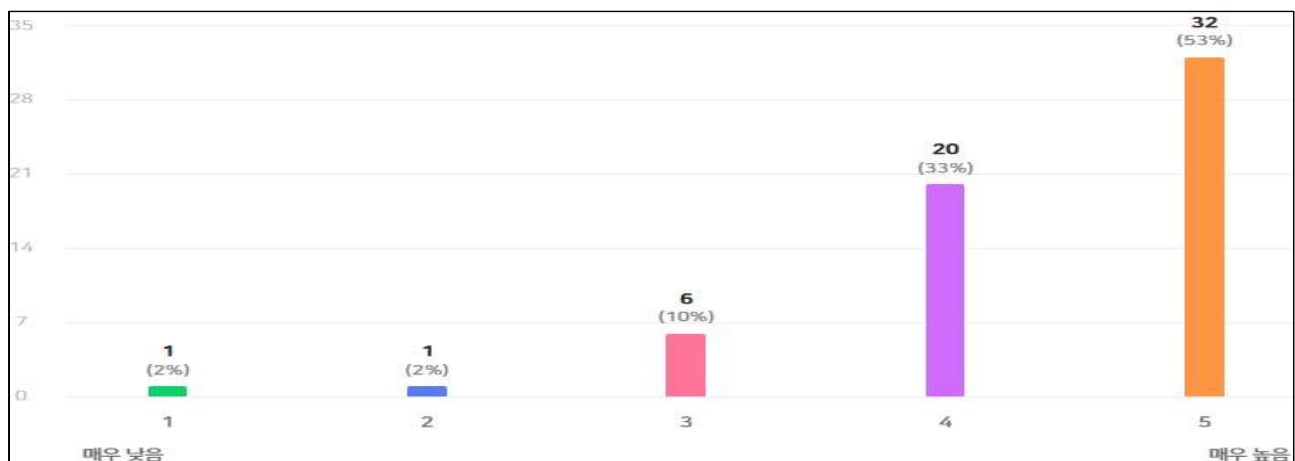
6) <제1세션> 김재민(金載玟) (주)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장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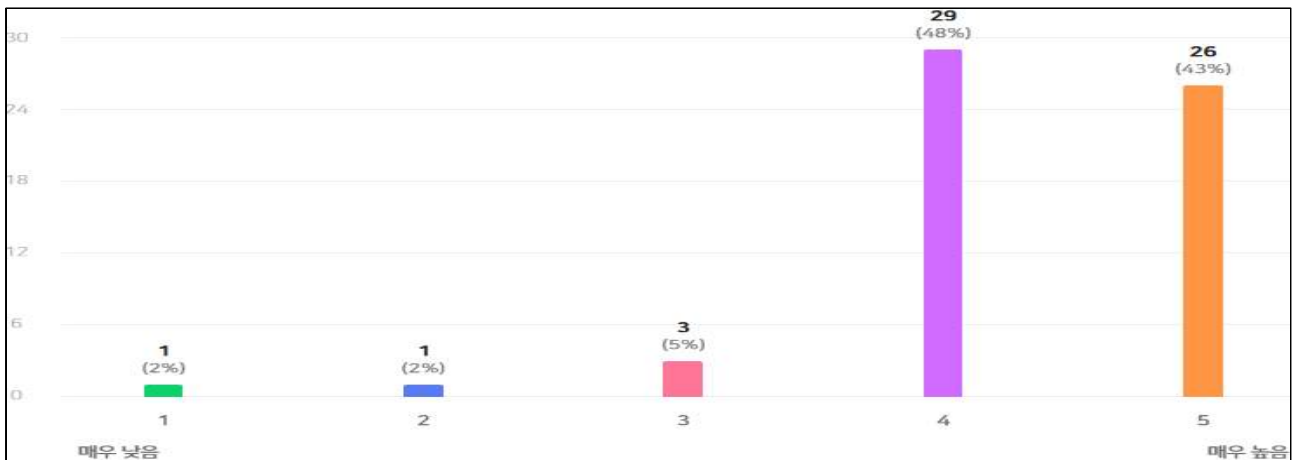


7) <제2세션> 겐마 마사히코(弦間 正彦) 와세다대학 이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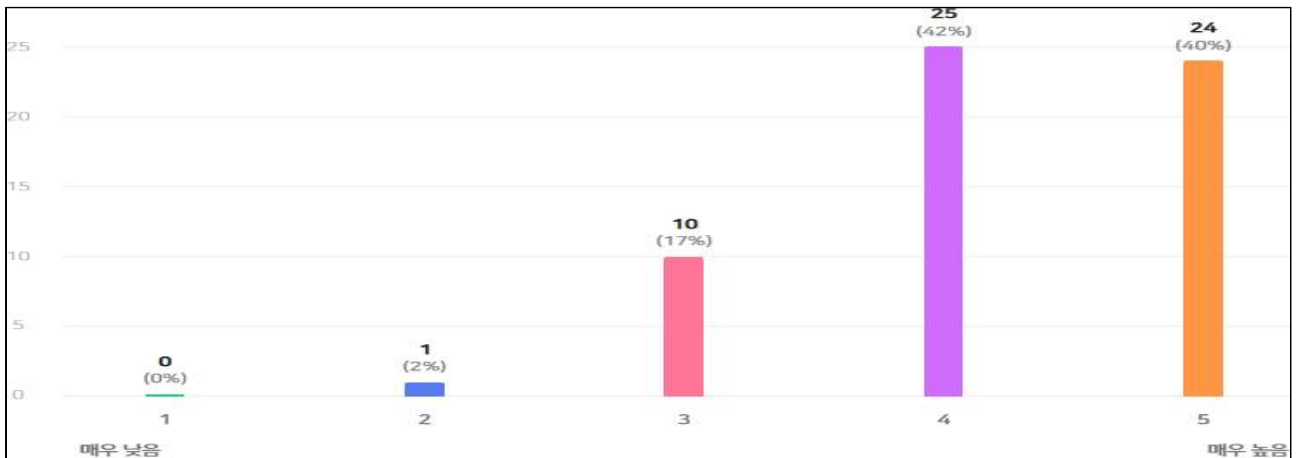
「교육 분야에서의 쌍방향 교류 -한일판 에라스무스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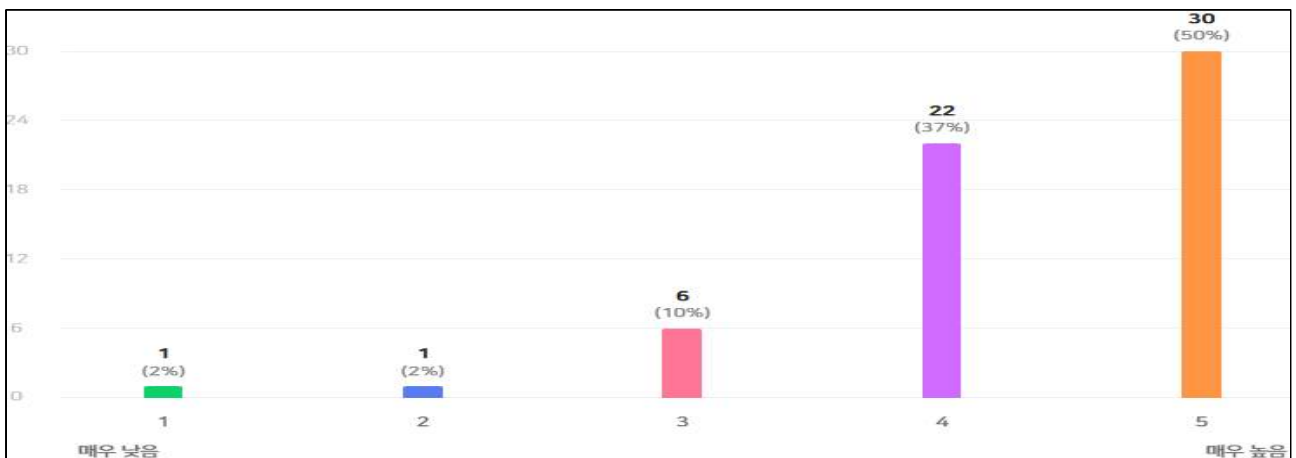
8) <제2세션> 이강호(李康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초고령사회 대응 해법 : Age-Tech와 한일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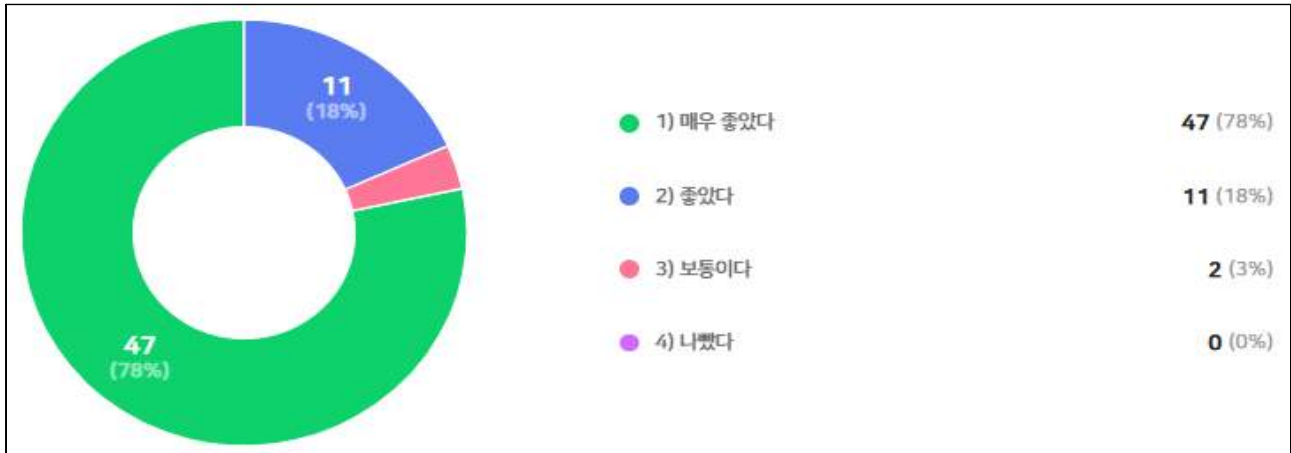
9) <제2세션> 세키지마 료이치(関島 亮一) 서울재팬클럽 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SJC의 활동 및 미쓰이물산 한국 사업」



10) <제2세션> 이진석(李振錫) (사)한국여행업협회 회장·(주)내일투어 대표이사
「한일관광교류 현황과 미래발전 방안」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 차기 회의가 개최 된다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

- 첨단, 최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 아주 많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차고 유익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오랜시간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과 실행력이 높아졌음
-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일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일 경제 협력에서의 현안들을 접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의견교환 자체가 한일 관계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더욱 치열하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발전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유익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더욱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간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한일 양국 기업과 경제계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으며,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한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와 기업 간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지금 맡고 있는 연구 조사, 한일 동향 파악 등 최근의 양국 정보와 인식, 분위기를 공유받을 수 있어 좋았고,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국제환경 변화 속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일 경제공동체, CPTPP, 스타트업 및 교육 분야 교류, 초고령사회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한일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참여 인원 증가와 우호적 환담이 좋았다
- 사전 준비가 철저해서 많은 지식을 확보할 수 있어 좋았다.
- CPTPP 가입 문제 등의 논의 활성화, 에이징테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발표 및 토론이 좋았음.
- 구체적이고 충실한 주제 발표가 인상적(관관, 에이징테크, CPTPP 등)
- 양국 참가자 수가 평상시보다 많았고, 최근의 한일 관계의 호전에 따라 상호간 분위기 좋았고, 강연도 모두 유익하였으며, 사무국에서 잘 준비하여 진행도 원활 하였습니다.
- 양국 간에 일반인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안내 및 사전 정보 제공이 좋았다.
-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 각 세션 별 강연 및 보고를 통한 방향 제시 및 해결 방안 모색이 좋았음.
- 강연내용이 좋았습니다.
-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최 노력이 좋았다.
- 각양각색의 정보 교환이 좋았다.
- 한일 양국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공동의 안을 내고, 산업간·대학간·정부간의 민관 합동의 협의가 유의미한 시간이었음.
- 현재 한일 관계 및 전망, 그리고 네트워킹이 좋았다.

■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양국 간 250명 참가한 회의임에도 본회의에는 참가 및 착석 인원이 저조했으며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 회의 기간 중 콘텐츠의 구성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 참가자 평가 및 제언

- 준비 고생하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나름대로 의미 있는 참가였습니다.
-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 알차고 좋은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앞으로 많은 관심 갖고 참가하겠습니다.
- 유익했습니다.
- 예방 일정부터 회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매 회의 종료후 논의된 사항의 구체적인 진척 현황을 점검해 다음 회의와 연계하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 행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이론적 및 사례 연구 중심에서 실질적인 기업 간 매칭에 진력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길 바람.
- 매우 유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일 양국 간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경제인 회의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 준비, 진행하시느라 관계자분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 협회 관계자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준비에서의 성실함이 느껴졌다.
- 분과회의를 만들어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겠다 싶었음.
- 회의 준비를 철저히 착오 없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국의 출입국관리의 여러 문제(서류작성, 제출, 지문 등) 간소화 내지 자동화 제안해 주기 바랍니다.
- 항상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빠른 세월 속에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 매우 유익했습니다.
- 리셉션 음식이 맛있었음.
- 유익한 회의였습니다.
- 다음에도 참여하겠습니다.
- 한일경제인회의가 곧 60주년, 환갑을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공동 번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상호 모색해 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음.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AI·제조 혁신 시대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봄.

- 행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흥미로우며 영광적입니다.
-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짐에 따라 한일 간 상호협력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상호 발현해 나감을 통해 점점 양국 간의 가까워짐을 미래 비전과 세대를 걸쳐 계속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 회의 준비와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토론 주제가 보다 실용적이고 현재 사업 중인 회사들이 참여하면 어떨지.
- 한일 대기업 또는 첨단 유망기업 관계자들의 산업별 동향,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나 국내 및 일본의 지방 도시 기업들 또는 지자체의 생존 전략 또는 상호 기업·기관 간 교류사례 발표 등 현장감 있는 세션도 많이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